

한글 시각문화의 향방  
 심포지엄 순서

등록	09:30-09:50	영상 _ 한글은 무엇인가?
	09:50-10:10	개회사_ 이병주 / VIDAK 타이포편집분과 부회장 축사 _ 이상규 / 국립국어원 원장
	10:10-10:20	사회 _ 이용제 / VIDAK 타이포편집분과 이사
제1부	10:20-10:50	제1 주제 발표 <sup>한글정음과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원리</sup> 정병규 /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장
	10:50-11:10	제1주제 토론 권혁수 / 디자인사회연구소 소장 송성재 / 호서대학교 교수
	11:10-11:20	질의 및 응답
제2부	11:20-11:30	휴식
	11:30-12:00	제2 주제 발표 <sup>한글은 글자다</sup> 한재준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2:00-12:20	제2주제 토론 홍동원 / 글씨미디어 대표 송현 / 시인, 한글문화원 원장
	12:20-12:30	질의 및 응답 사회/오후순서 안내
중식	12:30-13:50	
제3부	13:50-14:20	제3 주제 발표 <sup>한글과 디자인의 만남</sup> 김영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4:20-14:40	제3주제 토론 강현주 / 인하대학교 교수 김두섭 / 눈디자인 대표
	14:40-14:50	질의 및 응답
	14:50-15:00	휴식
제4부	15:00-15:20	인터뷰 영상 _ 한글과 현장
	15:20-15:30	사회자 문제제기
제5부	15:30-16:30	종합토론 _ 발제자, 토론자 토론 및 방청석 질문
폐회 및 공지사항	16:30	

축사

이상규 / 국립국어원 원장

# 한글과 한글 시각문화



글자가 없다면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도 향유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글자인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나 문명도 보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글자인 한글은 세계의 여러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글자가 어떻게 우수한가’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글 시각문화의 향방 심포지엄’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글 글꼴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각 문화의 관점에서 한글 글꼴을 바라본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글 시각 문화는 거리 간판, 도시 경관, 책 표지, 광고,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한글로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 것이 최고다 혹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단순한 구호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글꼴의 뛰어난 조형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에서는 한글 글꼴을 이용한 디자인을 비행기 표면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만 이것 외에도 한글 글꼴의 공공적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한글 시각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인사의 글

정병규 /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장

# 한글, 과연 우수한가?

한글은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과학적이고도 아름다운 한글이 갖는 위상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휴대폰 문자활용에서 보듯이 한글의 원리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서구 알파벳과 비교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창제 이래 지난 반세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격동기라고 말할 수 있듯이 한글 역시 엄청난 격랑과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르고 곱고 정확한 말이 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문자의 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화와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의 등장을 통한 새로운 쓰임새를 위해서 한글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면서 동시에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 문화를 기증해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반드시 오늘날 한글 시각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유행이나 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시각환경오염의 이슈가 되기도 하는 다양한 얼굴의 한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글 시각문화에는 본질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글 시각문화에 있어서 ‘왜 한글인가?’, ‘한글은 과연 우수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한글의 우수성은 한글 시각문화의 우수성으로 이행되어야한다는 가정이자 희망의 출발지점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어원, 예술의 전당,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한글 시각문화의 향방 심포지움’은 한글 시각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의 도출, 현상의 파악, 대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디자이너들만의 행사가 아닌 소통과 공의를 통한 공론의 첫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주제 발표

정병규 / 정디자인 대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장

# 훈민정음과

#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한국 디자이너들 모두는 한글을 떠나서는 하루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와 관심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민정음이 1446년에 반포되면서 우리의 한글 시각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구한 다른 문자들의 역사에 비한다면 훈민정음은 비교적 근래에 창제된 문자입니다. 한글이 태어난 시대의 서양은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한글은 '만든 문자'이며 '진화, 발전된 문자'가 아니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점이 한글과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글은 문자창제와 그 문자의 활자화가 동시에 이룩된 그야말로 유래가 없는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문자는 새겨지거나 그려지거나 한 역사를 거쳐 쓰이는 필기의 과정을 바탕삼아 활자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알파벳은 필기체가 잔존하지만 한글은 필기체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필기체의 과정을 거쳐서 활자화되었지만 한글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로 활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인쇄본'으로 우리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 타이포그래피라고 부르는 한글의 문자 표현적 실천이 훈민정음의 반포와 함께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분명히 하나(一)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한글은 필기체 과정이 없이 바로 활자로 태어난 문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는 세계 타이포그래피 사상 유래가 없는 한글만의 특징이자,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1986년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은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문자 역사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질문자라는 새로운 문자분류 항목을 한글만을 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탄생과 그 타이포그래피의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진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독창성을 위해 세계 타이포그래피 역사는 다시 씌어져야 합니다.

훈민정음은 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태어난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 창제 원리와 함께 운용의 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는 한글의 운용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을 통하여 문자사용의 원리, 즉 타이포그래피의 원리도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은 내용을 통하여 새로운 문자의 출현과 그 창제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위한 새로운 활자를 짓고, 그 활자를 사용하여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적 전범을 동시에 실천한 것입니다. 한글은 창제될 때 이미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그 실천적 전범을 가진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반포를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한글은 반포이후 훈민정음이 제시한 원리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하였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전형과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 문자입니다. 이는 다른 문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한글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는 한글이 가진 시각적 차원에서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양화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한글의 무한한 잠재력의 바탕은 훈민정음 그 자체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하나(一)로부터 다양(多)하게 발전해 나갈 운명을 타고난 독특한 문자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일즉다(一卽多)’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일즉다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즉다’는 ‘다즉일’과 함께 쌍을 이루면서 동양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일즉다의 원리’는 훈민정음 창제와 그 이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한글의 문자적 표현, 즉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근본적 실천 원리를 말합니다. ‘일즉다의 원리’는 다른 문자의 타이포그래피와 구별되는 한글만의 무한한 시각조형성과 실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일즉다의 원리’는 한글 시각문화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즉다’의 원리를 말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자의 타이포그래피, 예를 들면 알파벳 타이포그래피는 ‘다즉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다양한 필기체(多)로부터 활자(一)가 만들어 집니다. 서양 타이포그래피는 ‘다즉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극한점이 서양의 모더니즘 타이포그래피가 추구하는 타이포그래피적 ‘투명성’입니다. 현

대 ‘스위스 타이포그래피’의 실천적 원리는 바로 이러한 서양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한글은 활자로부터 다양한 필기체가 태어나는 특성을 가진 문자입니다. 한글만이 가진 일즉다의 원리가 한글 타이포그래피 실천의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이 바탕이 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즉다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독창적인 의미를 새롭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훈민정음’을 새롭게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기체가 아닌 처음부터 지어진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되었던 ‘훈민정음’의 의미를 새롭게 살피는 일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으로부터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디자인, 한국의 타이포그래피는 ‘훈민정음’의 시각 표현적 가치와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통하여 문자 창제와 그 원리를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의 실천 속에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전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함께 그 전범이 인쇄본 ‘훈민정음’이라는 실물을 통하여 발표된 최초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최초로 한글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최초로 실천 하였습니다. 세종은 문자를 창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활자로 짓고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종은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이 세종의 작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훈민정음, 세종의 작업을 전범적 원리로 삼고 이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실천은 훈민정음 반포와 함께 계속 이어 집니다. 당신 스스로 일즉다의 원리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훈민정음’ 반포에 이어지는 한글로 된 저작이나 운서, 언해의 간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는 1447년에 반포됩니다. 용비어천가 원고를 만들기 시작 한 것은 1445년부터 입니다. 1445년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용비어천가 원고는 1446년 10월부터 1447년 3월에 걸쳐 완성됩니다. 이것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중에 그리고 반포 후, 용비어천가의 짓기와 이의 활자적 표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실험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짓기와 제작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글 타이포그래피 의식입니다. 그 중요한 의식 중 한 가지는 정음체가 필기화되는 과정에서 살피지는 한글 시각화의 기능성에 대한 의식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발행과 함께 다양한 간행 사업을 펼칩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한글의 시각적 기능이 실험됩니다. 세종의 타이포그래피 의식은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음을 사용한 문헌들의 간행 사업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한글자형의 변화가 이를 말해 줍니다. 즉,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일즉다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1447)에서는 ‘하늘’을 상형하여 만든 중성 ‘·’는 훈민정음에서 창제한 대로 점의 꼴을 유지하면서 활자화되고 있습니다. 이 ‘·’는 독립되어 사용할 경우는 ‘·’ 모습이 유지되지만 다른 중성인 ‘—’나 ‘|’ 등과 함께 사용될 경우는 짧은 선으로 바뀝니다. 이는 필기를 통한 현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용의 기능성을 활자에 반영한 결과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즉다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바탕에는 훈민정음의 모아쓰기(合字) 원칙이 있습니다. 예의본에서 세종이 말한 부서(符書)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이 모아쓰기라는 한글만의 독창적 원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일즉다의 원리와 동전의 앞뒤면 관계와 같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처음에 ‘소리의 이치는 문자의 이치와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자의 이치와 소리의 이치가 둘이 아니라고(理既不二) 합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어디에서도 초성, 중성, 종성을 얘기하면서 소리로서의 초, 중, 종성과 문자단위인 문자소로서 초, 중, 종성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는 하나이며 곧 소리의 이치와 문자의 이치도 하나’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계관은 당시의 동양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세종의 세계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글 표기는 알파벳 등에서 보는 표기체제인 선형성이 아닌 모아쓰기를 표기 체계로 결정됩니다. 알파벳이 음소적이라면 이 모아쓰기는 한글이 음절적이라는 특성을 말합니다. 모아쓰기는 한글의 가장 중요한 문자표기적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모아쓰기는 바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독창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글은 초, 중, 종성이 모아져야 소리가 됩니다. 우리말의 소리 단위인 음절, 음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절화(合而成音)는 곧 모아쓰기(合而成字)입니다. 모아쓰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글의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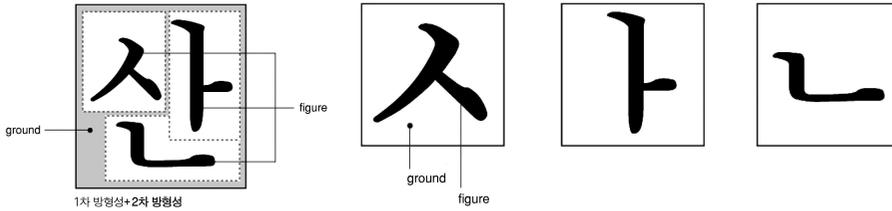
특징 중의 하나인 음성적 차원과 시각적 차원의 밀접한 상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은 다른 표음문자와는 다른 차원의 표음문자입니다. 즉 자질문자입니다. 한글 글자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에는 소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로부터 우리는 시각적 차원의 정보와 함께 청각적 차원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글 낱자를 만든 발성기관의 상형원리와 함께 모아쓰기의 원리에는 소리의 차원, 음성적 정보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서의 한글이 랑그(langue)적 차원이라면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적 실체는 파롤(parole)적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일즉다의 원리의 실체는 이 파롤화, 즉 발성화의 시각적 현실화(realize)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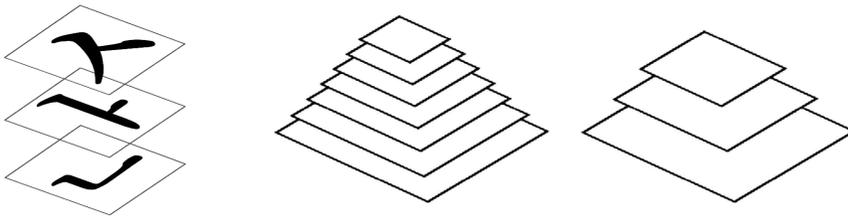
한글의 타이포그래피, 한글의 시각적 실체의 출발점이 모아쓰기입니다. 모아쓰기가 시각적으로 가능하려면 먼저 초, 중, 종성이 어우러져야 할 바탕이 필요합니다. 이 바탕이 한글의 시각화와 청각화를 가능케 하는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을 바탕으로 해서 초, 중, 종성이 어우러지지요. 그래서 한글은 읽히면서 보이게 되지요. 이렇게 한글이 읽혀지고 보이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사각형(ground)을 바탕으로 초, 중, 종성(figure)을 하나씩 쌓아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낱자(문자단위, 즉 자소) 초, 중, 종성이 쌓여서 하나의 낱글자(표기단위, 즉 모아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한글 한 낱글자는 우선 일차적으로 낱자 초, 중, 종성이 시각화되고, 이 낱자들이 모여 한 낱글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쌓여 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건축적입니다. 이렇게 다시 쌓여지기 위해서는 한글의 한 낱글자는 새로운 사각형을 바탕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글의 한 낱글자가 시각화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사각형이 필요합니다. 그 처음의 사각형이 낱자를 이룩하는 바탕이라면 두 번째 사각형은 낱글자를 위한 것입니다.

한글의 건축적 배열은 알파벳의 수학적 선형성과는 다릅니다. 알파벳의 선형적 공간에는 양방향의 시각적 힘이 작용한다면 한글에는 다방향 힘의 공간, 한글만의 역동적 공간이 형성됩니다. 한글의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적 특성을 한글의 '건축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글의 각 낱글자가 형성(모아쓰기)되는 것과 이들이 모여 단어와 문장이 시각화 되는 과정의 특징이 건축적이라는 말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이 건축성 위에서 구축된다 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건축성은 한글은 문자적으로 한자적 상형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건축성, 상형성은 한자와는 다릅니다. 한글은 그 건축적 층수가 초, 중, 종성의 3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음절 3분법의 음운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한자의 상형성이 사물적이라면 ‘한글의 상형성’은 상대적으로 음성적 특성이 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한글 ‘산’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낱글자 산이란 문자를 분류하면 세 가지 낱자, ㅅ, ㄴ, ㅁ의 꼴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앙에는 중성인 모음이 놓입니다. 이 예를 통하여 우리는 왜 표음 문자인 한글이 ‘서예’가 가능한지를 위에서 말한 한글의 건축성, 상형성을 바탕 삼아 가설적으로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낱자, 자소 하나 하나는 바탕(ground)과 모양(figure)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낱자는 모여지기 전에 스스로 시각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 낱자, 자소들의 시각적 특성은 음소의 비독립적 특성에 비해 독립적입니다.(낱자는 음운적으로는 비독립적입니다. 한글의 낱 음소들은 모아 지지 않으면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자적 독립성은 각 낱자가 조형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낱자 그대로 쓸 수 없고 모아져야겠지요. 이 모아쓰는 과정이 건축적입니다. 낱자라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이 연상됩니다. 한글은 다른 표음문자, 예를 들면 알파벳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글만의 역동적인 조형적 세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한글만의 조형적 특징이 ‘한글의 상형성’입니다. 이는 한글의 강한 시각화의 이미지적 에너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표음문자인 한글이 서예가 가능한 바탕입니다.

한글의 상형성은 이중적으로 구축됩니다. 시각적으로 독립적인 각각 낱자의 자소적 층위에서 그리고 모아쓰기 층위인 낱글자 층위에서 한글의 시각적 표현성, 이미지성은 발휘됩니다. 자소적 공간 속에서 시각적으로 독립적 존재이던 각각의 자소들이 스스로 조형성을 띠면서, 모아쓰기 공간인 낱글자의 사각형 속에서 다시 만날 때 그들끼리의 관계는 새로운 이미지적 차원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단지 ‘쓰기’만의 차원이 아닌 ‘그리기’ 차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글을 표현한다는 것은 따라서 ‘그리기’의 차원을 실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한글의 ‘그리기’ 차원이 한글 서예가 실현 되는 층위입니다. 쓰기와 함께 그리기의 차원이 잠재된 이 한글만의 조형적 차원이 한글 서예가 가능한 바탕입니다. 한글 서예가 가능한 이유는 한글의 문자 표현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 훈민정음에 적혀 있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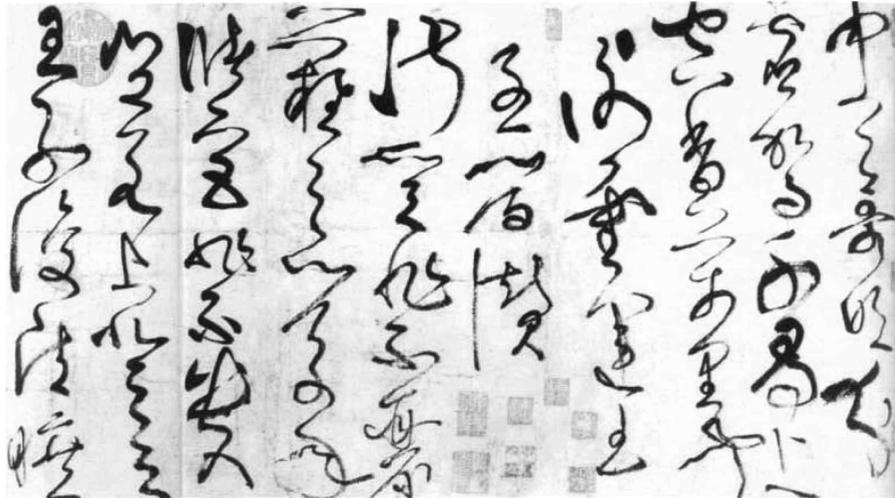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글서예와 한자서예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한글의 새로운 조형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세계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넓게 말해 한글의 서예적 상상력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자라는 문자의 특징에서 한자서예의 특징이 나오고, 한글의 문자적 특징에서 한글 서예의 특징이 나옵니다. 일본어의 특징에 의해서 일본 서예의 특징이 나옵니다. 서예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초월적인 세계의 표현만은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 서예만이 표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적 서예의 세계는 각국의 문자에 바탕을 두고 창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서예의 세계는 한글의 문자적 특성이 실현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글 서예와 중국의 서예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서예적 세계의 특징과 함께 한글과 한자의 문자적 특성도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예를 한문 초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한글이

초서로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노력하는 분이 김주성 선생입니다. 이 분은 한글의 초서 전 시회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분의 책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그 한 부분을 뽑아서 가져왔지만, 이 분의 작품은 아무리 봐도 저로서는 초서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적 초서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예는 각 나라의 문자의 특징에 근거해서 독자적 세계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의 유명한 문장이나 좋아하는 글귀를 서예로 표현하는 것은 한자적 문자적인 층위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글 서예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글은 초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초서가 불가능하니까 열등한 서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글이 초서가 불가능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중국의 유명한 당나라의 장욱(張旭)의 초서를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초서 작품, <고시사첩(古詩四帖)>의 부분을 보시면 한자 한자 낱글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서의 조형적 특징은 선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예는 '선의 예술'이라는 정의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선, 시간의 선, 신체의 선, 서예적 선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높은 경지가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화, 가시화, 현실화될 때 그것을 일러 초서라 합니다. 이런 것은 서양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글은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표의문자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발음기호가 아닙니다. 한문 한자 한자는 독자적 전체성을 가진 시각단위의 기호입니다. 이는 한자의 상형문자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입니다. 표음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발음기호입니다. 발음기호는 시각적으로 강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기호는 한 부분이 바뀌거나 생략되면 발성이 달라지며 당연히 의미의 차이 또한 대단하지요. '남'에서 '님'이 된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한글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전체성 측면에서 볼 때 한글은 자획의 생략과 심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형문자인 한자는 어떻게 잘 변화하느냐에 따라, 자형의 예술적 과장과 생략에 따라 한자만의 독특한 서예적 세계를 이룰 수 있고, 대단히 깊은 정신의 세계까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글 서예는 이와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한글 서예는 한자 서예와 공유하는 부분과 함께 한글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표음문자이며 발음기호라는 생각을 한글 서예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글의 표음성이 오히려 한글 서예의 장점일 수가 있으며 한글 서예의 독자적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분이 쓰신 '갈대'라는 한글 초서의 예인데, 여기서 보면 중성 'ㅏ'는 어느 부분에서 생략되어 'ㅣ'가 됩니다. 영어발음기호에서 'a'와 'i'는 다릅니다. 시각적으로 과장

# 글예

과 변형과 생략의 분명한 한계를 가진 것이 한글의 문자적인 특성입니다. 한글은 표음문자이지요. 그러면서도 한글은 동양적인 특성에서 뿌리 깊은 에너지를 이어 받은 상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상형성은 한자의 상형성과는 상대적입니다.

한글서예와 한글의 서예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적 특적인 한글의 건축성, 한글의 상형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표현, 실천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히라가나를 보면 시적인 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그런 선을 만드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한글만의 새로운 선적 세계의 가능성을 한글 서예에 기대해 봅니다. 서예는 바로 선의 예술이기 때문이지요.

이 선적 차원 외에도 수많은 한글 서예의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 가능성의 세계는 한글의 문자적 특성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지향해야 할 세계이기도 합니다. 한글 서예적 세계는 한글의 시각적 표현의 충만한 잠재성이 내재된 세계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글 서예의 발전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전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글 서예적 세계는 바로 서구 알파벳 타이포그래피와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선명히 갈라지는 상징적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구식 모더니즘 타이포그래피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한글 타이포그래피적 시각 문화적 세계를 탐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참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 모더니즘적 타이포그래피의 전환기에 우리는 한글 서예를 새롭게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서예적 세계는 한글만이 가진 시각 조형적 세계, 타이포그래피적 세계를 구축 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의 현장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기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유력한 한 방안입니다. 서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일즉다의 원리가 선명히 실험

되고 창조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한글을 가꾸고 새로운 시각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훈민정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함께 간행 정신도 새롭게 주목해야 합니다. 훈민정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의 표현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실천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최초의 결과이자 전범적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실천원리와 그 전범이 함께 창제된 문자는 한글 밖에 없습니다. 훈민정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바탕 원리는 일즉다의 원리입니다. 그 일(一)이 바로 ‘인쇄본’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다(多)의 세계는 창조적이고 열린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의 미래일 것 입니다.

권혁수 / 디자인사회연구소 소장

송성재 / 호서대학교 교수

송성재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 담론적인 이야기를 한두 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권혁수 선생님이 하실 것이니, 먼저 발제문을 읽었기 때문에 ‘일즉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을 보면 한글을 좀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 한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글꼴에 대해서는 세종 이후 글자 형태에 대해서는 서예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류가 없었고, 서로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글자의 모양에 대해 고민을 해왔을텐데 서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디자이너들은 어떤 부분을 반성을 해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안 되어 있다거나 인식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혹은 서예인들의 공예적, 장인적 정신으로 한 자 한 자 만들어가는 노력을 디자이너는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쭙어보거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글이 발음기호라서 초성을 생략할 수 없는 글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화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글자 폭이나 간격을 맞추다 보니 제가 보는 관점에선 요즘 서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왼쪽은 여기 오신 강 선생님이 쓰신 글씨 같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서체의 글자체입니다. 사각형 탈 네모꼴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획의 ‘ㄱ’꼴의 작은 획, ‘ㄱ’, ‘ㄷ’ 꼴의 짧은 획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탈 네모꼴이 생긴 근거는 영문자에서 어센더와 디센더가 글자의 변별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모꼴의 변형으로 나온 것이라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응용된 탈네모꼴의 받침은 기본적으로 저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비교적 읽기 쉬워지지만 그 반면에 탈 네모꼴 글자에서 모음의 ‘ㅍ’ 같은 경우는 받침자리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 빠침을 짧게 합니다. 그런 이유의 규칙성으로 인해 오히려 글씨가 짧아지지요. 여기는 없지만 ‘오’, ‘홍’, ‘서울’ 등의 글씨가 나오면 글씨가 작아지게 되므로 글씨를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영문자의 어센더와 디센더 역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탈 네모꼴의 글자들이 모음에서 어센더와 디센더의 역할을 해주던 모음의 획들을 희생시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이런 저의 생각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규

탈 네모꼴에 관해서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쓰기라는 한글의 조판방식 변화에 의해서 한국 현대의 디자인, 즉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성에 대한 의식이 탄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탈네모꼴의 받침에 대해선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보는 디자인과 세대의식이라는 컨셉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글세대의 한글 현대 디자인계에 대한 진입입니다. 예를 들면,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1975년 이후의 우리 디자인계에서 30대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대학교수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세대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의 바탕이 사회화, 정치화되면서 한글 전용의 문제와 발언권의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이야기할 때 기술의 의미를 배제하고 논의하는 그런 수준은 대단히 치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이 발행된 것도 당시 기술의 성과입니다. 훈민정음을 재 크기로 복사를 해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글 가로쓰기 문제와 한글 세대의식이 바탕이 된 탈네모꼴 서체의 바탕에는 기계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처음 제기해서 한글 탈네모꼴을 제안한 사람은 일본사람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모른척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탈네모꼴은 이것이 진짜 한글의 기본꼴이고, 훈민정음의 정신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로쓰기 조판 방식이 되고 세대의식이 생기고, 새로운 방식이 생기니까 ‘일즉다’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한글의 현상이지, 한글은 전부다 탈 네모꼴로 가야 된다가나, 훈민정음에 적혀있다는 식의 과잉주장을 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성재 교수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왜 그걸 세종대왕의

정신이라고 최고라고 할까라는 생각에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혁수

저는 정병규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의 상당부분을 예전에 홍대 대학원의 라라 프로젝트를 안상수 선생님이 진행하시면서 6개월간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선 계속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이견 단견이고, 이견 추론이고, 이견 연상이고, 이견 가설이고, 또 겸손하게 편견이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예전의 라라 프로젝트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즉 훈민정음으로부터 한글타이포그래피라는 원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어떤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만이 자리에서 환기를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오후 종합토론에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훈민정음을 통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나아갈 바,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에서도 부분적인, 때로는 심층적인 언급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성의 원리라든지, 단순성을 통해서 통합체를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하던지, 또는 연민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대중들을 위한 또는 같이 쓰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문제를 고려한 훈민정음의 제작원리와 그 정신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것이 문자이면서, 활자이면서, 조판이면서 동시에 건축구조의 비유를 통한 형식적 특성에 의한 발견은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시간에는 각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새롭게 발견한 화두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시비에 가까울 수도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한글디자인이만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라면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다지 한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운동으로 출발했든,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든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오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한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무슨 전문가가 되어겠다고 한다면 운동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시각운동의 차원에서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든, 예술운동의 차원에서든 운동이 되어야 한다면,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과시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정도의 차용이 아니라 이것이 한글 창제의 원리로 비롯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속성들과 특성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즉다’ 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 아닌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로 쓰여져야만 앞으로 ‘다’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운동의 원리이고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병규

한마디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세종 대왕의 가장 위대한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면 서도 자유롭다는 이중성을 훈민정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이중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글을 중심으로 운동이란 개념이 부딪칠 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바탕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긍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잉 긍정이 되어서 아주 식상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의 원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동 전제 조건이라는 사건을 말씀드리고, 우려 끝에 덧붙이는 것은 한글이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과잉 운동이 되고 있어요. 운동의 수준에서 이상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한글 운동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연구원 등에서 잘 의견을 모으셔서 가지고 표준판 한글 번역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은 5~10년 후에 다시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이 바뀌니까 말이죠.

잘못되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이걸 기회로 보다 한 차원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한글에 대한 논의도, 운동도, 실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단히  
부족한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자리에서 계속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용계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따로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정병규 선생님의  
말씀은 ‘일’에 대한 과잉운동을 우려하신 것으로 보았고, 처음 부분에는 한자와 한글이  
다르다는 예를 서예에 비추어서 설명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글은 다른 문자  
와 다르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오후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 발표

한재준 /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

# 한글은 글자다



말에는 어법, 글에는 문법, 글씨엔 서법이 있다. 그렇다면 글자엔 자법이 있을만하다. 그러나 우리 사전에 ‘자법字法’이라는 낱말은 없다. 한글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제작 원리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 우리에게겐 당연히 자법을 세울 근거가 있다. 자법을 바로 세우면, 한글 용자법· 한글 운용법 등 요즘말로 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온전히 살려 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철학서 『훈민정음』을 가진 한글은 ‘자법’이라는 낱말을 사전에 올릴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 또한 이 낱말을 세계 사전에 등록시키는 일도 한글을 연구하고 다듬는 모든 이들의 중대한 책무 중 하나일 것이다. 자법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한글의 창제 정신과 우수성이 오늘의 현실에 온전히 반영되긴 어려울 것 같다. ‘법’을 앞세워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의 찬사를 받는 배경의 하나가 바로 이 자법의 원전 곧, 제자해에 있음은 명백하다.

### #1.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오행뿐이다. 곤괘와 복괘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멎고 한 뒤가 음양이 된다. 무릇 어떤 생물이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라?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건마는 생각건데 사람들이 이를 살피지 않을 뿐이다. 이제 정음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지혜로써 경영하고 힘써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이치를 다하였을 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닌즉 어찌 하늘과 땅과 귀신으로 더불어 그 운용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중략— ㄴ ㄹ ㅁ ㅂ 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차례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듦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초로 삼는다. —중략— 가운데소리는 모두 11자이다. ㆍ 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에서 열림인데,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중략—

《한글학회(1998), 「훈민정음 율김과 해설」에서 인용》

원전의 내용대로 한글은 ‘소리를 따라 그 이치를 다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념이 모호해 지고 있다. 한글은 ‘국어國語’가 아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이다. 국어라는 낱말 속에 ‘언어’라는 큰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언어라는 낱말 속에 말과 글과 글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은 잘 알지만, 한글의 실체가 ‘국어’라는 그늘에 가려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 또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말과 한국글, 한국글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쓰지 않는 한 한글의 진흥과 발전은 묘연해 보인다. 한글이 글자라는 점을 끝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사례를 보자.

## #2. 영어는 알파벳, 그럼 한글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시작된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길 하다 보니 나오게 된 말이었는데, 문득

“영어는 알파벳, 일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렇다면 한글은?”

이라고, 내가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 곳에 있던 세 명 중 두 명은 한글과 관련된 과를 나왔고, 나머지 한명 또한 언어와 관련된 과를 졸업했다.

우리는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서, 엄청난 고민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훈민정음?”

“ㄱ, ㄴ, ㄷ, ㄹ, ?”

“한글?”

“나랏말싸?”

이었다.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많았으나, 모두 석연치 않은 답이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고민하던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네이버에게 물기로 했다.

그러나 네이버에도 그것에 대한 답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을 찾았다.

그 답은, “한글 날자”였다.

다들, 대학이랍시고 나오고, 책도 읽는다면 읽는 편이고, 상식이라면 없지는 않은데, 도대체 우리의 무식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한글날은 아니지만, 나 역시 다른 나라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스스로의 무식함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런 무식쟁이들!!

출처: <http://vihang.tistory.com/59>

## #3. 한글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문맹 퇴치 공로상의 이름도 ‘세종대왕상’이며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 역시 한글을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높이 평가하지만 오히려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글입니다.

1만 2천 7백 68자의 소리값으로 세계 최대의 소리값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가장 걸맞은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우리 한글은 국적 불명의 언어와 외래어의 홍수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하였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한류의 꽃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한때의 유행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 큰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문화적 뿌리가 깊어야 하며, 그 뿌리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의 바른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한글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한글의 위상을 흔들림 없이 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한글의 소중함을 깊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한글의 주인은 지식인만이 아닌 국민 모두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법률이나 제도는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며 우리 한글의 최후 지킴이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라말 사랑과 바른 언어 사용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풍요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꽃피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자라나는 세대가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 이동 통신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서 우리 한국인이 미래 두루누리(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고 그 주역이 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 대결 시대를 넘어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데에도 우리의 말과 글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 정협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다소간 단어의 이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깊은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이 화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559돌 한글날 기념사 내용 중 일부, 2005년 10월 9일. 국무총리

####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 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 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 상담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7367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900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 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뉴스

[앵커멘트]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은 한글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그리고 세계화 가능성을 언급한 책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 기자입니다.

[리포트]

WIPO,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최근 국제 특허 관련 공용어로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한국의 국가 위상 강화 등으로 한국어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한글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무차별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 서울시 상계동]

“요즘에 컴퓨터 시대에 너무나 줄임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요런것을 좀 개선해서 한글의 본뜻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말 바로 쓰기를 장려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세계 공용화를 목표로 이를 위한 선결 과제 등을 담은 책이 나와 관심을 끄니다. 훈민정음 연구가인 반계원 선생은 학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숨겨졌던 한글창제의 원리를 밝혔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네티즌들이 뽑은 궁금한 우리말, 우리말 유사어들의 의미 차이를 알려주고 우리말 본질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유도합니다.

[인터뷰: ○○○, 북스리브로 을지점 직원]

“직장인과 일반인 글쓰기에 관심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가꿔 쓸 수 있는지 말해주는 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글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한글의 과학성과 소중함, 글쓰기 요령도 알려줍니다.

한글의 원리, 역사와 변천, 세종대왕의 생애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한글을 조명하고, 수메르인이 만든 최초의 설형문자부터 한글까지 여러 문자를 소개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소설 ‘대지’의 작가 필 벅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라고 예찬을 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일반인들은 물론 네티즌들이 특히 되새겨 봐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YTN ○○○입니다.

출처: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6&s\\_hcd=&key=200710090938528616](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6&s_hcd=&key=200710090938528616)

## #6. 한글게임

[http://www.hangeulmuseum.org/sub/quick/game/speed\\_game01.jsp](http://www.hangeulmuseum.org/sub/quick/game/speed_game01.jsp)

## #7. 21세기 세종계획 백서

10년 동안의 세종계획 사업 총예산 150억670만원 중 글꼴개발보급지원액으로 2억5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07년. 국립국어원 발행. 54쪽.

표준어라는 개념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낱말이다. ‘한 나라의 규범 되는 말로 인정된 말이다. 한 나라 말에 방언을 비롯한 변종(變種)이 있어 국민간의 의사소통에 불편이 생기고, 한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에 방해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키고 따르도록 정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어는 한 나라가 법으로 정하여 놓은 언어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말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표준글자라 하면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 어휘가 낯설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글자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표준말이 있다면 당연히 표준 글자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표준

글자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 바른말 고운말 운동을 펼치듯이 곱고 바른 글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사용하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다. 한글과 관련한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글자의 핵심가치는 소통이며, 글자소통의 중심에는 대중적인 활자꼴에 있기 때문이다.

국어가 중요한 만큼, 한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위성을 저울질하지는 말아야 한다. 국어와 한글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온전히 빛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때에 조화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 세종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알고 있었다. 소리체계와 형태체계의 일치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한글이 완벽한 글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늘의 한글은 창제 때의 정신과 원리조차 제대로 잇지 못한 상태에 있다. 완벽한 글자란 없겠으나 완벽을 추구했던 훈민정음의 철학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으로 '글자의 꿈, 꿈의 글자'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

한글의 우수성이 널리 이롭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과시형이나 겉치레로 끝나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살려내려는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 보존하거나 가꾸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문화 상품화를 꿈꾸는 것은 한낱 허황된 유아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글이 불에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대상이라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우수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남아 있지만, 그 우수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늘의 한글은 부족하고 불편한 점도 많다. 글자도 말처럼 변해가는 대상이므로 방치해 두어 견잡을 수 없게 되면 소통 체계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끊임없는 원형 보존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개선이라는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

한글이 국어의 그늘에 가려져왔음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제부터라도 국어와 관련된 전문가와 지식인들은 조금 더 한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글을 연구하고 다듬는 모든 이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글 관련 연구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자만 때문에 그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우수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글의 구체적인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글이 버려

져 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포함한 단말기 입력방식이 스무 가지 이상이나 되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음소구조 한글을 음절구조 글자처럼 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글이 디자인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이미지나 상품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글 글씨 쓰기 교육 체계를 문제 삼지 않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한글 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교구 하나 없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글날에 한글의 문체를 말하지 않고 국어의 문체만 말하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국어학자와 언어학자와 한글학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전업 작가들에게는 생존권과 같은 한글 활자꼴 저작권을 사법부가 앞장서서 박탈했다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서 글자꼴이 까만 상자 속에서 번쩍거리며 짝하고 있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글의 창제정신, 곧 한글정신인 자주적 창의성, 백성을 아끼는 마음, 실용적인 과학성 등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자 자랑하자 수출하자고 외쳐 대고는 있지만, 한글의 본질적인 가치는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그 우수성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 중심의 생각과 태도로 계속 나아가서는,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글의 우수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한글의 우수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들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짧은 생각을 적어 보았다. (다음 글은 지난 2005년 8월에 홍익대학교 higg 편집진의 요청으로 썼던 것을 조금 더 다듬고 정리한 것이다.)

## #8. 끝나지 않은 한글 디자인

그동안 한글에 대한 연구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글 창제 배경에서부터 철학, 원리, 역사, 활용과 개발 등 통시적인 접근과 공시적인 접근 방식의 다양한 문제들, 특히 기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한글과 관련한 연구 주제를 찾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의 연구가 되겠지만, 관심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답을 드린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추천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한글에 대한 학제學際(interdisciplinary) 차원의 연구를 활성화 하지는 것이다. 한글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해 관련 연구 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한글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철학, 심리, 교육, 음악, 미술 등이 그것이다.

1. 한글 창제에 대한 철학과 원리 또는 의미와 가치 연구

- 훈민정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
- 한글 디자인의 철학과 의의
- 한글 창제의 조형원리
- 한글 창제 정신에 반영된 기능과 미의 의미
- 살려 써야 할 한글 자모의 원리와 체계

2.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 탐구와 구체적 대안 및 전략
- 한글의 상형적 표현의 한계와 가능성
- 낱소리글자와 자질체계 장점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방안

3. 가로 짜기와 세로짜기에 대한 연구

- 한글 조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원인과 배경, 얻은 것과 잃은 것
- 세로짜기 환경에서 가로짜기로 바뀐 배경과 근거
- 세로짜기 전용 활자꼴의 필요성
- 가로짜기 활자꼴과 세로짜기 활자꼴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

4. 탈네모틀 한글꼴에 대한 연구

- 세벌체의 역사와 의의
- 세벌체의 새로운 가능성
- 세벌체의 장·단점
- 세벌체와 세벌식 자판의 가능성과 필요성
- 절충형 한글꼴과 미래형 한글꼴

5. 네모틀 한글꼴의 향방 연구

- 변천사와 경향
- 개발 방향의 새로운 가능성
- 세로 짜기와 네모틀 한글꼴
- 가로 짜기와 네모틀 한글꼴
- 네모틀 글자의 장·단점

6. 한글 활자꼴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기능적 평가  
심미적 평가  
역사적 평가  
사회·문화사적 평가

7. 한글 활자꼴의 개발과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사례 조사 및 분석  
조합구조, 너비 체계, 높이 체계, 자폭 체계  
반침의 특성을 살린 풀어쓰기 한글  
기준선 및 글줄 흐름선  
표준형 활자꼴 개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  
개발 활자꼴의 효율적 또는 심미적 운용 방법  
최소 용량·최소 변화의 한글꼴 실험

8. 쓰임새에 따른 전문적 연구

교통 안내 시스템 용  
학습용 한글꼴, 해외 홍보용  
글씨 쓰기 교육용  
교과서 용, 신문용, 기계 판독용, 군사 작전용, 게임용 등  
개인용을 포함한 국가, 기업, 단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한글

9. 폰트 에디터 개발 연구

한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폰트 에디터  
세벌식 활자꼴을 즉석에서 시스템에 탑재시킬 수 있는 에디터  
입체적 또는 멀티미디어적 활자꼴 개발을 위한 전용 에디터  
폰트와 관련된 여러 기술

10. 기타

한글 활자꼴 저작권 보호의 입법화  
통일에 대비한 한글 정책(남·북한 글자꼴 비교 연구 등)  
한글 제자체계를 바탕으로 한 소리와 형태의 관계 규명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전략 및 대 국민 교육 체계 정립과 실행  
정부 차원 또는 기업 차원의 한글 폰트 개발 및 보급 정책과 전략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해 놓은 일은 너무 없으니 부끄럽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한글을 바라보고, 작은 생각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후배들을 기대한다. -2005년 8월. 한재준. (끝)

제2주제 <한글은 글자다> 토론

홍동원 / 글씨미디어 대표

송현 / 시인, 한글문화원 원장

홍동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큰 전제로 최근 들어서 21세기 넘어오면서 한글 꼴에 대한 토론이 네모꼴이냐, 탈네모꼴이냐 같은 그런 공방전의 연속이 이번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부에서 정병규 선생님의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네모꼴이든, 탈네모꼴이든 그 표기 방법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그것이 기능과 쓰임새가 있는데 그것의 우위를 다투는 그런 토론이 재연된다면, 어쩌면 제가 탈 네모꼴을 실천하는 장본인처럼 여겨질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 같으나, 국어를 만든 것 같으나 라고. 그랬더니 한글을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어는 누가 만든 것 같으나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세종대왕이 만든 것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국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월요일에 세미나를 듣고 확실히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글은 확실히 세종대왕이 만든 것 같다. 이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초반 한재준 선생님을 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을 만들면서, 아이들과 가장 친근한 서체를 고를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서체의 종류, 크기 등 타이포그래피의 결정권을 편집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한테 어떤 글자를 쓰면 될지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한재준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당시 세벌체인 공한체 샘플을 부탁드렸고 그것으로 국민서관의 창작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본문에 탈네모꼴 서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탈네모꼴, 다시 말해 세벌식 서체들이 본문에 쓰이게 되는 유행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탈네모꼴은 본문으론 미흡하다 따라서 패션이니 트렌드니 하면서 부분

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한 선생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세벌식은 아이들이 손글씨를 쓰는 글자꼴과 같이, 모두가 처음 한글을 썼을 때 나타냈던 형태소로 나타나는 데 이것을 강조해 한글의 필기체로 발전시키면 굉장한 형태가 나오겠다는 생각에 탈 네모꼴에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꼈지만, 어느 누구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작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겨레신문사에서 본문 서체 개발해 달라고 했을 때,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네모꼴 형태의 전통적 형태를 지켜나갈 것이고, 한겨레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이므로 탈네모꼴이 적합할 것임을 제의했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디자이너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자리에 나와서 과연 디자이너도 한글전문가일까하는 참담한 심정이었죠.

신문을 만들고 있던 어느 날, 건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번호판 디자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번호판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런 터에 묘한 도전의식이 생겨났죠. 자동차번호판이 숫자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글이 한두 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다’가 아닌 ‘ㄱㄴㄷ’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야기 돌아가는 상황은 ‘가나다라’ 방식과 영어 알파벳 ‘ABCD’로 방식으로 압축되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모음의 형태에서 가로나 세로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표기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영문표기는 국어연구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시 ‘가나다라’ 방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나 뜨거운 감자였던 관계로 예산이나 시간이나 거의 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일은 독립 운동하듯이 디자이너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전문가다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를 요구하는 대신 ‘ㄱㄴㄷ’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연구원에서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전문가냐 아니면 당신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는 그냥 오퍼레이터인 것이냐” 라고 묻자 전문가임을 인정하면서 건교부 쪽에선 다음과 같은, 즉 표준어 표기법에서 나와 있지 않고, ‘ㄱㄴㄷ’로 사용한 전례도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디자이너가 그런 것을 언급한 경우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일하라, 그게 당신이 애국하는 일이라는 뜻이 행간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표준이라는 것을 정할 때 세종대왕은 ‘ㄱㄴㅇ’의 표기법과 그 표기를 갖고 합체하는 원리를 만들었지 지금의 명조나 고딕체의 구조를 만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 딸과 말했듯이 마치 우리는 한글과 국어, 명조와 고딕과 같은 활자와 같은 세 개의 다른 구조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다른 글꼴이 나왔을 때 세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의 합체인양 말하고 있지 않나, 그게 표준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세종대왕이 표준을 만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명조체, 고딕체만을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세벌식 표기 방법도 하나의 표기 방법인데 그 구조가 하나는 오래되었고, 하나는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혹은 자리싸움의 시작은 아닌가, 앞서 96년 초반에 동화책을 세벌식으로 만들었을 때처럼 이런저런 분분한 기억들을 다시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1주제 정병규 선생님 발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선 한글 창제의원리를 철학적, 혹은 미학적으로 접근하셨는데 한글의 총체적, 혹은 실용적인 측면의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한글은 모듈화가 안된 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한글 교과서와 인터넷 메신저 상의 한글 형태는 굉장히 다릅니다. 메신저에선 이런 저런 형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을 다고쳐 사용합니다. 작은 글자에서 특히 ‘활’, ‘문’ 자 같은 세로로 만든 글자들은 뭉쳐져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그 글자는 나쁜 글자라는 겁니다. 좋은 글자의 예를 보여 주고 좋은 글자를 만든 다음 기술적으로 해결 안 되면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글자는 너무나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논의가 미학적인 부분에서만 업그레이드 될 뿐이어서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재준

저는 타이포그래피를 자법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자법을 세워주는 일, 핵심적인 이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발제문을 풀어서 설명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네모꼴과 탈네모꼴에 한정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언젠가

또 다른 방식으로 논쟁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은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논쟁도 좋겠지만 제 경우는 대개 글로 씁니다. 글로 쓰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도 써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제

더 깊이 있는 토론은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 모아서 하기로 하고 송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송현

반갑습니다. 저는 송현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많이 가봤는데 질문은 맨 끝에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인데 질문과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걸 봐오면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렇다면 나는 내 식으로 해야 할지, 남하는 것을 따라해야할지 고민하다가 평소에 좋아하는 홍동원 선생님을 보고 나도 선생님처럼 따라해야하겠다고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니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왜 질의는 안하고 탄소리를 하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재준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비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나이를 봐도 시비하고 따질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재준 선생님과 나는 덕담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나이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의 서법을 만들자하는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말이 여러 가지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례들과 세 번째는 우리말을 어떻게 헤아리고 발전시키고 다듬을 것인가의 과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옳고 특히 버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의 사례들은 비장하게 느껴져서 저는 숙연한 마음으로, 나는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런 기분으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렇게 간간하게 생긴 사람이 하니 더 비장하게 들리고 나도 한재준 선생님의 생각에 열심히 동참하고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오니 젊은 분들이 많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74년에, 약 35년

전에 서라벌고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쌍문동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서라벌고등학교는 길음동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버스에서 버스운전사가 유행가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그 아무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클래식을 좋아했는데 싸구려 유행가를 틀어놓으니깐 저런 천박한 노래를 듣는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유행가를 몹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젊은 때는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덩치 큰 사람과는 싸움을 잘하는데 운전사 아저씨와는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못이겠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 창밖에 보이는 글자꼴을 공부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창 밖에 보이는 글자꼴 도로 표지판이나 간판 글자꼴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목적은 유행가 안 들으려고 딴 생각하느니 그런 걸 하자 그래서 버스를 타면 눈이 뚫어지게 도로 표지판이나 간판 글자꼴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런 다음 1985년에 디자인하우스 출판부에서 한글의 자형학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까지도 저런 한심한 오빠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과주 출판단지에서 한글과 스승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시에 30년 전 제가 한 이야기를 송현 어록이라고 해서, 30년 전 것들을 내 사진과 함께 걸었어요. 아 이고, 3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셨다면 그 동안 고생하셨던 게 하루아침에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인터넷을 보니까 텔런트 이순재 선생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같은 동문인 텔런트 김태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덧붙여서 말하면 “야, 태희야, 너 CF 많이 찍는데 가까운 청춘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아름다운 작품 좀 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디자인하는 학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같은 이야기인데, 특히 요즘 젊은이들 돈 생기는 일에 너무 정신 팔려 살다보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30년 전의 일을 인정을 받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돈 또한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글을 디자인하고, 한글을 공부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밥값은 이것으로 떼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

2부 순서에서 한재준 선생님께서 연구 과제를 나열해주셨는데 저나 여기 오신 학생 분들의 관심 주제도 그중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백 분 이상 오셨으니까 하나씩만 연구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생기면 곧,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한글 발전과 연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오후 토론 시간에 하겠는데 국립국어원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의 정 선생님의 '일즉다'라는 말과 한 선생님의 표준어하고는 아주 상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어서 표준화를 한번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저는 표준화는 실용성에서는 중요하지만, 영속성 즉,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즉다'의 개념이 훨씬 실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동원 선생님 말씀인데요. 확장의 방식으로 글꼴을 계속 쓰고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ㄱㄴㄷ'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느냐, 당장 우리 화폐부터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조폐공사에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 앞에 'ㄱㄴㄷ'로 나가지 않고, 영어로 나가냐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우리 디자인 부분도 원점에서 재출발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축사에 말했듯이 어떻게든 'ㄱ' 안에 한글을 디자인과 글자와 음악, 그리고 어떤 행위를 같이 한번 담아볼 작정입니다. 알파벳에서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만들 듯, 글자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심자는 생각입니다. 글자 하나에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심은 다음에 그것을 함해보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다들 전공자이지만 활자가 이미 완성형까지 가버리면 다음 완성형의 표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의문입니다. 끝없는 열림과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훈민정음의 기본정신을 수백만 년이 지나가도록 재창출되고 그 과정에서 문자의 설화와 역사와 시대정신이 담

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영문 'S' 자를 이미지 하였는데 외국문자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획으로 가지 말고, 문자를 문화로 디자인을 하는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공감대가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련시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준화에 대한 반론적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한재준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질문이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바로 인터넷에 유포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즉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로 세워져야 아름다운 '다'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일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재

오후까지 끝까지 남아주셔서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3주제 발표  
김영욱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글과 디자인의 만남

--한글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1. 문화사적 관점

문자는 이데올로기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千字文에는 ‘始制文字 乃服衣裳’이라는 구절이 있다.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의상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인류문명사로 보자면 의식주가 문자의 발명에 앞섰다 할 것이지만, 적어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천자문을 쓰고 익혔던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문자를 인간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만큼이나 중시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서양에서는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기준을 음성 언어에 두었다. ‘야만인barbaros’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문명어였던 고대 희랍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하였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야만인이라 하지 않았다. 문자를 몰라야 오랑캐(南蠻北狄)가 되는 것이다. 서양의 로고스 중심 문화에 대비되는 것이 동아시아인들의 문자 숭배 사상이요, 帝王的 文字觀이다.

문자는 고대 동아시아인들에게 제왕적 권위의 표상이었다. 통치의 기본 도구요, 국가 표준의 상징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秦始皇帝의 書體統一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기원전 3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중국’을 가능하게 만든 기준이기도 하였다. 문자를 통하여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고, 천하의 백성들은 동일한 문자를 통해서 황제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다.

진나라 이후로, 方形的 중국 문자가 동아시아의 표준이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2,3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남아 있다. 한글의 기원을 ‘古篆’에서 구하고자 했던 훈민정음의 언술도 문화사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 훈민정음의 끝부분에는 정인지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字倣古篆’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훈민정음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古篆’은 원래 周나라 왕실에서 사용했던 문자다. 왕실의 권위가 살아 있을 때에만 해도 주변의 제후국에서는 古篆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字倣古篆’이라는 자구적 해석에 매달려서 한글의 기원을 중국의 고대문자에서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것은 기원에 관한 구절이라

기보다는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제왕적 문자 이데올로기를 함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字倣古篆’이란 訓民正音이 人間의 所産이 아니라 宇宙의 理致를 담은 것이라는, 새로 만든 문자에 부여한 帝王的 權威에 대한 隱喩다.

한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자를 발명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 질서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은 중국과 다른, 조선의 표준을 세우고자 했다. ‘正音’이라는 말도 표준이 되는 소리라는 뜻이다. 세종이 훈민정음 서문의 첫 문장에서 ‘異乎中國’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과는 표준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가의 창설을 위한 기초로서 훈민정음이 주어졌다.

訓民正音이란 글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세종은 訓民을 위한 正音을 통하여 조선을 풍속이 아름다운, ‘至治’의 이상 국가를 건설코자 했다. 한자가 아닌, 한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에는 새롭게 발명된 문자의 수월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의 수월성에 대한 근거는 문자사의 흐름 속에서 짚어볼 수 있다. 문자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이다.

- 1단계: 상형문자--신성 문자, 마야 문자, 갑골문자 등등.
- 2단계: 표의문자(단어 문자)--한자.
- 3단계: 음절문자--페니키안 문자, 데와나가리, 고려시대 구결 문자, 일본의 가나 문자.
- 4단계: 음소문자--고대 히랍의 알파벳, 로마 알파벳, 이두의 받침 문자.
- 5단계: 자질문자--한글

한자나 가나의 경우에는 소리의 단위인 음절 분석이 자음과 모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에 비해 알파벳과 한글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존재하는 문자다. 그러나 알파벳도 한글처럼 음성 자질에 의한 분석적 문자 체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알파벳은 자모가 모두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하나의 단위로만 주어진다. 가령, ‘b, p’ 혹은 ‘d, t’의 경우, 상호 간에 음성적 유사성이 있지만, 이것이 한글처럼, 문자의 디자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글처럼 ‘ㄴ, ㄷ, ㅌ’ 등으로 디자인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세종의 문자 디자인 방식은 매우 독창적이었다. 문자가 지닌 음성적 유사성을 더

자인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의 ‘제자해’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한글의 기본 자음이 세종 당시에는 모두 17개였는데, 기본자 5개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머지 글자 중에서 10개는 위와 같이 획을 더하는 음성학적 방법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다.

ㄱ은 ㄱ에 비해 소리가 점점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하였다(ㄱ比ㄱ聲出稍厲故加劃).  
 ㄴ에서 ㄷ으로(ㄴ而ㄷ), ㄷ에서 ㅌ으로(ㄷ而ㅌ), ㅌ에서 ㅍ으로(ㅌ而ㅍ), ㅍ에서 ㅂ으로(ㅍ而ㅂ), ㅂ에서 ㅃ으로(ㅂ而ㅃ), ㅃ에서 ㅅ으로(ㅃ而ㅅ), ㅅ에서 ㅆ으로(ㅅ而ㅆ), ㅆ에서 ㅇ으로(ㅆ而ㅇ), ㅇ에서 ㅎ으로(ㅇ而ㅎ), 소리로 인하여 획을 더하는 뜻은 모두 같다(因聲加劃之意皆同).

이것을 좀더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ㄱ→ㅋ  
 ㄴ→ㄷ→ㅌ  
 ㅌ→ㅍ→ㅂ  
 ㅂ→ㅃ→ㅅ  
 ㅅ→ㅆ→ㅇ  
 ㅇ→ㅎ→ㅎ

세종은 기본글자 5개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획을 더하여서 나머지 9개의 글자를 만들어 내었다. 9개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글자의 음성적 특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글은 그 문자의 형상이 체계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도상성이 두드러지는 문자다. 한글에 도상성이 주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 글자들이 ‘象形’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에 기록된 언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상형했다.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制字解, 訓民正音]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기본 글자에는 ‘ㄱ’ 외에도, 설음인 ‘ㄴ’, 순음 ‘ㅌ’, 치음 ‘ㅃ’, 후음 ‘ㅇ’ 등이 있다.

설음 ㄴ은 혀가 위 턱(입천장)에 붙는 모습을 상형했다.(舌音 ㄴ象舌附上顎之形)

순음 ㅁ은 입모양을 상형했다.(脣音 ㅁ象口形)

치음 ㅅ은 치아의 모양을 상형했다.(齒音 ㅅ象齒形)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했다.(喉音 ㅇ象喉形)

다음으로, 한글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에 체계적으로 디자인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체계적’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체계적이라는 말은 전체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기초적인 요소로부터 복합적인 요소가 어떻게 파생될 수 있는지도 명시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층부와 하층부, 기본 요소와 파생 요소들이 구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알파벳처럼 자모가 일정한 이유도 없이 한 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복잡한 한자가 서양의 알파벳보다는 문자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체계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한자는 기본 글자가 있고 그 기본 글자에 입각하여 복잡한 글자들을 만들어 낸다.

文字라는 말은 ‘문’과 ‘자’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이것은 어원적으로 기본자와 파생 글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문(文)은 사람(人), 산(山), 나무(木)처럼 기본적인 글자들이다. 자(字)는 집(宀) 안에 있는 아들(子)이라는 글자가 암시하듯이 기본적인 글자들이 새끼를 쳐서 만들어낸 파생적이고도 복합적인 글자라는 뜻이다.

인(人)과 산(山)이 합쳐지면 선(仙)이 된다. 이것은 ‘산에 사는 사람’으로 ‘신선 선(仙)자’이다. 人과 山이 기본 글자인 ‘文’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문들이 합성되어서 자(字)가 되므로 仙은 ‘字’인 것이다. 人과 木이 합쳐지면 휴(休)가 된다. 사람이 밭에 있지 않고 나무 아래에 있으므로 ‘쉴 휴(休)’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밭에 있다면 그것은 ‘밭 갈 전(佃)’이거나 ‘소작인’이라는 뜻이 된다.

한자는 이와 같이 文의 뜻을 알면 그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字의 뜻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한자 시스템을 효율적인 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자는 기본

적으로 글자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획이 복잡하며 文과 字의 관계도 항상 투명한 것은 아니다.

한글은 한자와 다르다. 자음자 14개를 살펴보면, 기본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와 가획자(ㅋ, ㆁ, ㅌ, ㅍ, ㅊ, ㅍ, ㅆ, ㅎ), 이체자(ㄷ) 들이 모두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가획자와 이체자들은 모두 기본자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글 모음도 마찬가지다. 천(·), 지(一), 인(丨). 세 모음으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천지인으로 어떻게 나머지 한글 모음을 만들어 내었는지는 훈민정음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ㄱ은 · 와 같지만 입을 오므려서 내는 소리이고, (ㄱ與·同而口蹙)  
그 모습은 · 와 一로 합쳐서 만든 것이다.(其形則·與一合而成)  
ㄴ은 · 와 같지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이고, (ㄴ與·同而口張)  
그 모습은 · 와 一로 합쳐서 만든 것이다.(其形則丨與·合而成)  
ㄷ는 一와 같지만 입을 오므려서 내는 소리이고, (ㄷ與一同而口蹙)  
그 모습은 一와 ·로 합쳐서 만든 것이다.(其形則一與·合而成)  
ㄹ은 一와 같지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이고, (ㄹ與一同而口張)  
그 모습은 一와 ·로 합쳐서 만든 것이다.(其形則丨與·合而成)

‘ㄱ’를 만들어내려면 천(·)과 지(一)를 합치면 된다. ‘ㄴ’를 만드려면 인(丨)과 천(·)을 합치고 ㄷ는 지(一)와 천(·), ㄹ는 천(·)과 인(丨)으로써 합성해 낼 수가 있다. 천지인을 이용하여 ㄱ ㄴ ㄷ ㄹ 를 만들고, 이것은 천지인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고 하여서 초출자(初出字)라고 불렀다. 초출자를 바탕으로 ㅅ ㅈ ㅊ ㅋ 를 만들어 내었으므로 이것들을 재출자(再出字)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자: ·, 一, 丨.

초출자: ㄱ, ㄴ, ㄷ, ㄹ.

재출자: ㅅ, ㅈ, ㅊ, ㅋ.

이것을 한글 자음과 비교해 보자.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

가획자: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이체자: ㄷ, ㅌ.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만든 원리가 체계적이면서 평행적이다. 모음의 기본자들은 모음의 기본적인 음성적 부류에 근거해 있다.

· 는 양성 모음이다.

ㅡ 는 음성 모음이다.

ㅣ 는 중립 모음이다.

이와 같이 천지인은 모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성’ ‘음성’, ‘중립’ 등의 음성학 특징을 반영한 문자이다. 천지인의 두 개를 합친 것이 초출자인 ‘ㄱ, ㅋ, ㆁ, ㆅ’이고 초출자에 천지인을 더한 것이 재출자인 ‘ㄷ, ㅌ, ㆇ, ㆈ’이다.

이러한 음성학적 특징은 세종의 진리관과도 일치한다. 만물의 이치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理既不二, 즉 이치는 이미 둘이 아니므로, 그 원리가 음성학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인간은 남녀로 존재하듯이, 양성(양)과 음성(음)에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중립적 존재이다. 이처럼 한글의 자음과 모음 24자는 모두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오늘날 한글 휴대폰이 불과 10개 내외의 자판으로도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는 사실도, 한글이 음성적 유사성과 도상성을 문자 디자인에 체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ez-한글(나랏글) 방식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6 ㅂ
7 ㅅ	8 ㅇ	9 ㅡ
* 가획	0 ㅣ	# 병서

1 ㅣ	2 ·	3 —
4 ㄱㄱㄱ	5 ㄴㄴ	6 ㄷㄷㄷ
7 ㅂㅂㅂ	8 ㅅㅅㅅ	9 ㅈㅈㅈ
* 가획	0 ㅇㅇ	# 병서

- ㉠ ㄱ+가획(\*) = ㅋ 친 자립병서(#)=ㄱ
- ㉡ ㄴ+가획(\*) = ㄷ ㄴ+가획(\*)+가획(\*)= ㅌ  
ㄴ+가획(\*)+병서(#) = ㄸ
- ㉢ ㅁ+가획(\*) = ㅂ ㅁ+가획(\*)+가획(\*)= ㅃ  
ㅁ+가획(\*)+병서(#) = ㅍ
- ㉣ ㅅ+가획(\*) = ㅆ ㅅ+가획(\*)+가획(\*)= ㅈ  
ㅅ+가획(\*)+병서(#) = ㅊ ㅅ+병서(#)=ㅅ
- ㉤ ㅇ+가획(\*) = ㅎ
- ㉥ ㅡ = 단독 사용
- ㉦ 초출자(初出字) 구성 방식?  
ㅣ + · = ㅏ  
· + ㅣ = ㅓ  
· + ㅡ = ㅗ  
ㅡ + · = ㅜ ?
- ㉧ 재출자(再出字) 구성 방식?  
ㅣ + · + · = ㅑ  
· + · + ㅣ = ㅕ  
· + · + ㅡ = ㅛ  
ㅡ + · + · = ㅓ

## 2. 미학적 관점

한글은 네모꼴이다. 그래서인지 한글은 아무리 디자인 해 봐야 알파벳처럼 다양하지도 않고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한글이 네모꼴이라서 디자인에 제약을 더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모꼴이 지니는 장점을 낮추어 봐서도 안 될 것이다. 네모꼴의 특징은 線的인 알파벳과 비교·대조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영어의 알파벳은 가로쓰기밖에 할 수가 없다. 글을 쓰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알파벳도 세로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부자연스럽다. 이에 비해서 한글은 가로쓰기를 하지만 세로쓰기도 가능하다. 글을 쓰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고정이 된 것은 아니다.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쓸 수 있다.

쓰는 방향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문자 시스템이 실제로 문자의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다. 큰 깃발에 글씨를 쓸 때에는 세로쓰기가 좋다. 가로로 쓰려고 하면 깃발 폭이 길어져서 곤란하다. 폭이 긴 깃발은 바람이 불 때에는 깃발을 잡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깃발이 접혀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깃발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마을 축제나 행사를 할 때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깃발이다. 깃발에는 큰 글씨가 세로로 씌어져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아주 높은

것대에 세로로 글씨가 썩어져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인다.

한국은 간판의 천국이다. 간판이 너무 다양하여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도시에는 간판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만 도시 미관의 문제와는 별개로, 관점을 달리하자면, 이것은 한글이 그만큼 쓰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고도 볼 수 있다. 한글은 가로쓰기든지, 세로쓰기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만 주어진다면 공간의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주어진 공간에 적응하여 글씨를 쓸 수 있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이란 광고 글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꽂이에 책을 꽂혀 있을 때에, 한글로 된 책은 책등에 적혀 있는 제목은 세로로 쓰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책의 제목이 눈에 띄기 쉽다. 영어의 경우에는 책등의 제목이라고 할 지라도 가로로 썩어져 있기 때문에 책이 누워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세로로 꽂혀 있는 경우에는 고개를 조금이라도 가우똥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가로쓰기의 경우에도, 읽는 순서에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영어는 좌우 순서이지만 아랍어는 그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한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큰 간판 글씨나 현판 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도 한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어 알파벳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상상해 보라. 독자들에게 글쓰기의 새로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인식속도는 그만큼 느려질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글은 가로쓰기, 세로쓰기, 좌우읽기, 우좌읽기 등,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편리한 문자이다.

그러나 영어에는 p나 b처럼, 아래로 획이 내려오기도 하고 위로도 획이 솟구치기도 해서 서체가 역동적일 수 있는 반면에, 한글은 한결같이 네모 상자 속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현대 한글 서체의 개발은 네모꼴에서의 탈출이 큰 이슈로 등장할 법도 하다.

물론, 한글은 기본적으로 자모 문자이기 때문에 네모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네모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이미 백여 년 전부터 있어왔다. 현대국어학의 아버지라

고 불리는 주시경 선생께서 한글 풀어쓰기를 시도한 바가 있으며, 그의 충실한 제자였던 김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국에 망명하여 항일투사들을 길러내는 군관학교 교장 시절에 이미 한글 풀어쓰기를 실천하였다. 해방 후, 북한으로 돌아와 한글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 김일성에 의해 숙청을 당한 이후로는 김두봉 선생의 한글 이론이 북한에서 맥이 끊기게 되었지만, 그의 동향 후배이자 주시경 선생의 문하생이었던, 외솔 최현배 선생은 한국에서 한글 풀어쓰기 운동을 주도한 바 있었다. 학자들이나 재야 인사들의 호응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풀어쓰기 운동은 그리 성공적이 못 했다. 한글 풀어쓰기에 대한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보이지만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많은 선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모꼴 한글이 여전히 표준으로 유지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기존에 이미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매체 주도적 기득권 때문에 네모꼴이 유지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이외에, 네모꼴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미학적 이유는 없겠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려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이 지니고 있는 표준적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문자의 네모꼴에는 정치적, 역사적, 미학적 이유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한글의 글꼴이 기본적으로 方形인 까닭은 이것이 동아시아 글꼴의 표준형이었기 때문이다. 方形이 표준이 된 것은 서체의 통일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서체의 통일이 진나라에서 비롯하였다. 진나라 이전의 篆書는 둥글고 길쭉한 형태였으나 진나라 시대가 되면서 방형이면서 전서보다 납작한 隸書로 서체가 통일되었다. 서체의 통일은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예술성을 강조하는 書法의 문제와 표준을 강조하는 書體와는 개념상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帝王의 문자는 왜 방형이어야 하는가?

한글 서체의 原形도 점, 선, 수직, 수평, 세모, 네모, 원형 등 기하학적인 도안들이 네모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대왕이 책의 편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등과 같은 古書籍에서 발견되는 방형의 기하학적 글꼴이 한글 서체의 원형이다.

세종은 기하학적 문양 속에 우주의 질서를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주적 질서라는 것은 근원적인 것인데 모든 형태들을 근원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點과 線으로 還元된다. 한글도 이러한 근원적 요소로부터의 합성을 통해 디자인 되었다.

모음의 기본자인 천지인 三才라는 점·선(수직, 수평)의 기본소로부터 모든 모음자를 합성해 냈으며, 자음의 기본 소들도 수직선, 수평선의 합인 ‘ㄱ, ㄴ, ㄷ’ 사선과 역사선의 합인 ‘ㅅ’, 우주의 圓融함을 상징하는 ‘ㅇ’ 등, 다섯 가지의 기본 소로써 모든 자음자들을 합성해 내었다. 자음과 모음이 합쳐야 하나의 소리 단위인 음절을 이루는데, 음절을 이루는 방식인 ‘附書’도 세종이 고안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한글 모아쓰기’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종이 부서를 고안한 것은 點·線에 의한 우주적 질서를 方形 속에서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글도 역시, 隸書의 標準化와 맥이 닿아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당시의 동아시아인들은 세상을 네모꼴로 이미지화 하였다. 이러한 허구의 이미지는 ‘天圓地方’이라는 말로 대변된다. 진정한 제왕이란 하늘의 명에 의해서 지상을 다스리되 그 법이란 우주적 질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의 기하학적 디자인과 방형의 글꼴은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미학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러한 방형의 디자인이 표준 혹은 규격이라는 엄격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표준이 주는 선물은 어울림이다.

한글에는 어울림의 미학이 담겨 있다. 네모꼴에는 역사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웃 나라의 다른 문자들과 어울려서 쓰고자 했던 세종의 한글 정신도 읽어낼 수도 있다. 한글은 다른 문자와 잘 어울린다. 한자와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일본 문자와 섞어서 쓰기도 어색하지가 않다.

표준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서로 어우러질 수 있다. 방형의 세계관에서 한자도 기본글꼴이 정사각형이요, 가나도 정사각형이다. 네모꼴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한·중·일 문자들은 서로 섞여 어우러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다.

영어 텍스트에 한자가 불쑥 등장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영어책 속에 가타가나나 히라

가나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영어권 독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독성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미학적으로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글 책에서는 어울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글 책에 한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핵심 어구를 한자로 표시했을 때는 오히려 가독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 텍스트의 요구에 따라 알파벳이 노출되더라도, 가나 문자가 노출되더라도 한글은 이웃나라의 문자들을 자연스럽게 안아줄 수 있는 문자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한글 책자에 영어나 한자가 노출되는 것은 책 나름의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 어울려도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자아내거나 글자를 인식함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글은 어울림뿐만 아니라, 표음성과 표의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바 있듯이, 문자의 발달 과정을 간략하게 세 단계로 구분하자면, 단어 문자, 음절 문자, 자모 문자로 할 수가 있겠는데, 한글에는 모아쓰기나 표기방식의 독특함으로 말미암아, 자모 문자에 속하면서도 단어 문자나 음절 문자의 기능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단어 문자란 한자처럼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음절 문자란 가나처럼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구별되면서도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음절문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글이 음절문자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약어를 만들 때에도 한글은 음절 단위로 축약할 수 있다.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 너무 길면 ‘노사모’로 하면 된다. 한글이 음절 단위로 축약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이 음절문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세종이 한글의 운용 법을 제정할 때에 초·중·종을 모아쓰기 하라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음절은 소리 단위로서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쓰든지, 세로로 쓰든지 읽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일본어가 가로쓰기도 하고 세로쓰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가나 문자가 음절 문자이기 때문이다. 한자도 마찬가지다.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음절이므로 글쓰기 방식이 가로이냐 세로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영어의 경우에는 음절 단위의 축약이 불가능하다.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음절 단위로는 불가능하다. ‘유(U)-스테(Sta)-오브(of)-아(A)’ 따위는 곤란한 것이다. 그냥, USA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영어가 자모 문자이기 때문이다. 한글도 자모 문자이기 때문에 USA와 같이 알파벳만을 축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요즈음,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ㅅㄱ’이라는 것이 있다. ‘수고’했다는 인사말이다. 이것은 한글이 USA처럼 알파벳 문자로도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신세대뿐만이 아니다. 1970년대 중반에 ‘국립서울대학교’를 ‘ㄱㅅㄷ’으로 축약해서 쓴 적이 있었다. 지금도 관악캠퍼스의 정문에 있는 서울대의 교문에는 ‘ㄱㅅㄷ’을 조합해서 만든 조형물이 있다. 연세대학교도 ‘ㅇㅅ’으로 축약해서 쓰기도 한다.

말하자면, 한글을 네모꼴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그것은 관습의 하나일 뿐이다. 어울림과 다기능의 한글은 글꼴의 디자인에 관한 한, 얼마든지 열려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글이라는 문자 그 자체에 대한 문자적, 시각적, 구성적 이해의 깊이와 다양함에 있다. 한글은 제작 원리상, 자음자 모음자를 가로로 풀어쓰기도 할 수 있어서 좀더 다양한 글꼴로도 변환할 수가 있다.

알파벳처럼 가로 풀어쓰기도 할 수 있다. 모아쓰기를 하여서 일정한 형태로 정돈할 수도 있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한글은 알파벳의 장점을 모두 갖춘 위에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다양한 글꼴보다도 더욱 풍부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알파벳처럼 다양하게 한글의 글꼴이 개발되지 못한 까닭은 시간의 문제 때문이었다. 수천 년간 사용된 알파벳에 비해서 한글이 한민족의 공용 문자로서 사용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이었다.

### 3. 언어사적 관점

한글이 발명된 지 500여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알파벳에 비하면 한글은 젊은 문자다. 한글이 한자를 제치고 공식문자가 된 것은 개화기 때 있었던 한 정치적 선언으로 말미암았다. 개화기는 개항(1876) 이후부터 합방(1910) 이전의 시기를 말한다.

고종 황제의 칙령 제1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법률이나 칙령은(法律勅令) 모두 국문을 바탕으로 하되(總以國文爲本) 한문을 덧붙이거나(漢文附譯) 혹은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或混用漢文)[고종실록 권32, 65]

고종 황제의 이 선언은 한글을 우위에 놓고, 한자를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만든 큰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고종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일까? 이것은 한문의 불편함이나 국문의 실용성 등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자의 사용이 불편하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니 고종 시절에 갑자기 더 불편해진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종황제의 실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칙령 이후에는 실록에서도 국문으로 된 기록이 실렸다. 을미년 1월 5일자 고종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국한문 혼용체가 보인다.

十二月十二日에 我聖上陛下께서 我國家의 獨立自主 ㅎ는 基業으로 宗廟에 誓告 ㅎ시며……訛言煽動 ㅎ는 國賊이 有 ㅎ거든 共攻 ㅎ기를 跂望 ㅎ노라[고종실록 33권 1장]

이것은 일종의 포고문으로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이다. 여기에 적힌 12월 12일은 음력으로 갑오년이지만 양력으로는 고종 32년, 1895년 1월 7일이다. 이날 국왕과 세자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묘(大廟)에 가서 조종(祖宗)의 영(靈) 앞에서 자주 독립을 선포하였다.

여기에서 홍범(洪範) 14조를 포고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었다. 칙령 1호가 나온 다음에 홍범 14조가 선포되었고 그날 종묘에서 참배한 내용을 을미년 새해 초 내무아문에서 국민에게 포고하는 글에서 상세하게 알렸다. 그 글은 칙령1호의 국문위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국문의 지위를 한문의 지위보다 높은 황제의 칙령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홍범14조와 칙령1호는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 청나라와의 관계 청산은 정치적인 문제이며 국문에 관한 문제는 문화 교육적인 문제이어서 얼핏 보기에는 긴밀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문위본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문화교육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록에서의 기록들이 칙령과 홍범과 포고문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문정리의 문제가 순수한 문화교육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갑오년과 같이 동학혁명, 청일전쟁 등 정치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황제가 직접 칙령으로 반포하기에는 사안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화교육적 문제는 정치 문제와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나올 법한 것이다. 국문위본의 문제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당시 개혁 세력들이 모종의 정치적 문제로 인식했음에 틀림이 없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계 청산이 정치적인 중심 문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문위본의 문제는 중국과의 문화·정치적 단절이라는 당대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조선시대만 하여도 한문을 ‘진서(眞書)’라 하였다. 한문은 그야말로 진리를 전하는 성스러운 문자로 격상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자 중심의 문명관을 지니고 있었던 조선의 왕조에서는 그 어떤 통치자도 진서(眞書)에 대비되는 속서(俗書)로서의 국문을 문자생활의 으뜸으로 내세울 수가 없었다. 한문은 중국의 고급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문을 국문의 아래로 생각하는 것은 사대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에 익숙해 있던 조선시대 지배계층과 일반 백성들은 성현들의 말씀이 담겨있는 한문의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개화기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894년에 대한제국의 언어문자 정책이 ‘국문위본 한문부역(國文爲本 漢文附譯)’으로 급선회한 까닭이 무엇인가? 청일전쟁 이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숭문 정신(崇文精神)에 입각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도 청일 전쟁 이후에는 퇴색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교과서였던 ‘국민소학독본’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대목을 읽을 수가 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나 정치관에 대한 비판이 교과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요순 황제 시절의 통치는, 한국인들에게 이상적인 정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상 국가의 모델이었다. 세종도 요순의 다스림을 통치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세종을 해동요순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렇게 지고지순했던 요순의 모델은 애당초 숭배의 대상이지 한국의 경우와 동등 비교의 대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에도 흠이 가기 시작했다. 국민소학 독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支那의 堯舜禹湯이 아모리 聖人이라 ㅎ는 我 世宗大王의 聖神 ㅎ신 德을 엇지 當 ㅎ리오  
[國民小學讀本]

세종대왕의 훌륭한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고종 황제의 칙령 이전에는 대왕이 중국의 성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공개적이고도 교육적 내용의 글에 표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종을 부각시킨 당시의 노력이 한국인의 자주 독립의 민족주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운 듯하다.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곧 한국적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상소학(尋常小學)에는 여러 가지 삽화가 등장한다. 서울의 남산 근처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의 소개(尋常小學3卷 30張)와 일본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도 있다.(尋常小學 2卷 1張).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반영된 독립 의식은 사대주의의 청산에 무게 중심이 실린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영향력이 교과서의 제작에도 미쳤음을 증언하고 있다. 결국 국문위본의 언어 정책은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반도 지배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황제의 칙령으로 국문위본을 공포하자 많은 애국지사 혹은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에 호응하여 국문 운동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국문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 지식인이 유길준 선생이다. 그가 1895년에 지은 서유견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유길준 선생이 국한문체(國漢文體)를 채택한 중요 이유는 한글이 알기 쉽다는 것과 쓰기 편리하다는 것에 있었다.

一은 語意의 平順 ㅎ을 取 ㅎ야 文字를 畧解 ㅎ는 者라도 易知 ㅎ기를 爲 ㅎ미오,  
二는 余가 書를 讀 ㅎ미 小 ㅎ야 作文 ㅎ는 法에 未熟 ㅎ故로 記寫의 便宜 ㅎ을 爲 ㅎ미오,  
三은 我邦 七書 諺解의 法을 大略 效則 ㅎ야 詳明 ㅎ을 爲 ㅎ미라.[西遊見聞, 1895]

그가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짐작이 된다. 1881년 일본에 머무르

당시에 그가 접촉한 일본의 학자인 후쿠자와(福澤諭吉)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위의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전통적인 언해의 법(諺解의法)을 따랐다.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통용되지 않았던, 말하자면 언어생활의 주류가 아니었던 한국의 전통적인 중세 시대의 언해문에서 사용되었던 국한문체를 유길준은 새 시대에 걸맞은 문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주시경 선생은 1896년 독립신문사 내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였다. 국문 동식회란 한글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자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글맞춤법’과 관련된 최초의 민간인 학술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문 편집을 위한 국어 표기법의 통일이 현안 문제였기는 했지만, 그는 여기에서 나아가 표기법의 통일이 자주 독립의 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주시경 선생은 당시의 한글 어문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22세에 쓴 최초의 논문인 “국문론(1897, 獨立新聞)”에서 선생은 고종 황제의 국문위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큰 聖人(성인)께서 만드신 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쓰기도 쉬우니 이 글자들로 모든 일을 記錄(기록)하고 사람마다 젊었을 때 餘暇(여가)를 얻어 實相事業(실상 사업)에 有益(유익)한 學問(학문)을 익혀 각기 할만한 職業(직업)을 지켜서 우리나라 獨立(독립)에 기둥과 柱礎(주초)가 되어 우리 大君主陛下(대군주 폐하)께서 남의 나라 임군과 같이 튼튼하게 保護(보호)하여 드리며 또 우리나라의 富強(부강)한 威嚴(위엄)과 文明(문명)한 名譽(명예)가 世界(세계)에 빛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선생의 노력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그는 고종 황제가 퇴위하던 해인 1907년 학부(學部)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國文研究所)에서 위원직을 맡아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한글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선생은 국문연구소가 문을 닫게 된 이후에도 계속 국문 보급 운동에 앞장서게 되며 그의 어문민족주의 사상을 후학들에게 널리 전하였다.

개화기의 선각자 유길준 선생도 국문 보급 및 국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주시경 선생과 같이 어문민족주의 사상에 깊게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다. 주시경 선생이 저술한 책의 제목에는 국어와 국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국문론(1987), 국어문법

(1889), 국문문법(1905), 대한국어문법(1906),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 국문 연구안(1907), 국어문전음학(1908), 국문연구(1909), 국어문법(1910).

그러나 국어문법(1910)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말을 국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국어라는 말은 일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10년 6월 10일에 발행된 보증친목회보 1호에 주시경 선생이 쓴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어와 국문이라는 말 대신에 ‘한 나라말’, ‘한 나라 글’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해서 국어, 국문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911년 4월 ‘배달말 글’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어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순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을 ‘배달말 글 몸음’이라는 말로 한 것이다. 한편, 1913년에는 오늘날 한글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모’가 결성된다. 여기서 ‘모’란 회, 즉 모임이라는 뜻이다. 그 모임의 회장은 주시경 선생이었다.

이것이 ‘한글’이라는 명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미 한 나라말, 한 나라 글과 같은 명칭이 있어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구분한 명칭이 있었지만 이것이 길기도 하고 둘을 하나로 아우르는 명칭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글이라는 말이 탄생하였다. 한글은 일차적으로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지만 우리말도 아우른다. ‘한’의 의미는 멀리는 삼한의 한과 관련이 있고 가까이는 대한제국의 ‘한’을 연상시킨다. 한을 하나(一), 큼(大), 바름(正) 등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한말’, 다음에는 ‘배달말 글’ 등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언어만을 가리킨다거나 음절이 길다는 이유로 포용성이 있는 ‘글’이 채택되어 ‘한글’이라는 말이 우리 문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언어·문자 전반을 포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현재 전하는 기록을 더듬어 볼 때에 ‘한글’의 최초 사용 연대는 1913년 3월 23일이다. 이 말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13년 9월이며 1914년 조선어 강습원이 ‘한글 배곧’으로 바뀌고 1915년에는 이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졸업증서가 발부되자 ‘한글’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요약컨대, 자주적이어야 할 한글 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자주적인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외세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한글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선각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쌓여서 오늘날의 ‘한글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동원 / 글씨미디어 대표

송현 / 시인, 한글문화원 원장

김두섭

오늘 김영옥 선생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기 전, 김영옥 선생님이 쓰신 저서 <한글>을 읽고 나왔는데 오늘 원고도 그렇고 대부분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선생님을 처음 뵈었고, 관계도 없는데 학생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영옥 선생님과 특별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덧붙였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한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1~2부에서 말씀하셨던 토론자 분들은 내공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미리 질문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세종임금의 한글 단독창제와 그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교과서에는 조선왕조실록엔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세종임금의 한글 단독 창제가 거의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알고 알려진 집현자 학자인 성삼문, 신숙주 등은 당시 나이 25세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성삼문은 집현전에 들어 온지 불과 1~2년 밖에는 되지 않았고, 신숙주는 들어오자마자 2년 동안 일본에 다녀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 시간적으로도 한글 창제를 도왔다는 것이 설득하기 힘듭니다. 이들은 벼슬 또한 종 6품 밖에 안 되는 하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직접 알현하는 것조차 힘든 위치였습니다. 또한 집현전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부제학 최만리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가며 한글창제 및 반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상관 몰래 한글창제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숙주의 글에도 ‘왕이 28자를 만들고 언문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또한 문종을 비롯한 왕자들과 정의공주가 한글창제를 도왔다는 문헌들을 봐서도 집현전의 도움 없이 세종임금에 의해 한글창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

정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세종은 임금의 권위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면모도 갖추었다고 보여 집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최만리가 상소를 올리며 한글반포를 극구 반대했을 때도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라고 꾸짖으며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이것은 세종 자신의 학문적, 이론적인 바탕에 확신을 둔 것이라 여겨지는 대목입니 다. 또한 박연을 통해 아악을 정리할 때도 소리의 기준이 되는 악기인 편경의 미세한 소리 차이도 감지해낼 만큼 대단한 청음 능력으로 박연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왕조실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종임금은 소리와 음악에 대한 부분에서도 뛰어난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인 질문은 세종임금의 훈민정음 단독창제에 관한 견해와 더불어 그 바탕이 된 언어학자로서, 음악가로서의 세종임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구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1부, 2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김영옥 선생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미학적 관점에서도 밝히셨듯이 방형, 즉 네모 틀 한글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모 틀 한글은 완성형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이 완성형 한글을 만들려면 2350자의 한 벌을 만들어 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세벌 체나 탈 네모꼴이 글자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훈민정음해례본에도 모아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 네모 틀 안에 넣어야 한다, 가두어 놓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는 한글의 외곽 형태는 현재 쓰여 지고 있는 네모 틀 한글 글꼴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세벌체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조합형, 탈 네모 틀 한글은 완성형, 다시 말해서 네모 틀 한글에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글 낱글자 제작 원리 중 인성가획의 원리도 탈 네모 틀 글꼴일 때 더 형태적인 논리가 공고해 진다고 보여 집니다. 한글을 무문자민족들에게 전파하는 등의 한글을 국제화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국제정음부호도 이러한 가획의 원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조합형, 즉 탈 네모 틀 글자는 확실히 그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닌 국문학자가 보는 관점으로 조합형글자 즉 세벌 체, 형태적으론 탈 네모 틀 한글에 대한 전망과 그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세종의 단독창제에 대해서 김두섭 선생님께서 더 많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무엇을 이야기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는 실록에도 실려 있고. 우리는 부제가 붙어있으니 두 번째가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 중의 한분이었는데 그 당시 한문이라는 것은, 한자라는 것이 자연학을 연구하고 의미라는 문학, 훈고학, 자연학이 학문의 핵심이었죠. 최만리라는 뛰어난 학자는 문학에 가장 뛰어난 학자인데 그 최고학자와 직접 대결을 한다는 것은 언어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중국어에서 운이라는 것을 분석했다는 것이예요. 중성과 종성을 분리 한 것인데 세종이 이걸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중성은 오늘날 모음이고 종성이 초성과 같다고 할 때 초성과 중성의 자음과 모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언어학적 과학적 발상이 있었기에 28자의 발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디자인은 뜻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리의 세계가 있죠. 문자의 세계라는 것, 훈민정음 책을 보면 공상각치우가 음의 소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기에 탄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집현전 학자들이 처음엔 반대상소를 했지만, 세종이 15세기 지식사의 뛰어난 한 단면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신하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책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임금과 신하가 함께 만듭니다. 그러니 함께 같이 만든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발상을 하는 것은 세종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독 창제라는 것, 가장 독창적인 사상은 세종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모꼴에 대해서 탈 네모꼴이라는 것은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체의 개발은 서사 재료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바위에 새긴 것, 비단에 새긴 것, 종이 파피루스에 새긴 것 다 다르지 않습니까. 600년 전과 지금하고는 서사 재료가 달라지고, 필기도구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모필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연필이나 볼펜이라는 도구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환경으로 달라졌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한글은 독립적이고 이중적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 애플 'apple'에서 a 뒤에 머가 온다고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데, 한글은 '국밥, 구박'이라는 단어들 마다 바뀌는 독특함이 있어요. 훈민정음 어디에도 네모꼴 안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린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늘날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얼마든지 떼어 내어 할 수 있고 다만 제가 디자인에 문외한 인으로 말하겠습니다. 전통으로 모필 문화는 좀 굵잖아요. 일본, 아시아는 굵잖아요. 서양의 철필, 스틸로 쓴 문화는 굉장히 얇잖아요. 한글의 가독성이 중요한데 굵기를 충분히 가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굵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벌식이나 완성형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한글에 대해서 완성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센드, 디센드 이야기를 했는데 중성에 의한 받침에 의한 초성에 의한건 아니면 조합 방식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에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길쭉한 것은 초성의 모음에 붙어있고, 넓적한 것은 그렇고,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입니다. 오늘날 재료가 다 바뀌었는데 다양한 실험을 해야죠. 그야말로 '일즉다'의 시대인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현주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강현주입니다. 사회자께서 시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서를 읽는 것은 생략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로서 과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김영욱 선생님의 주제발표문과 저서 <한글,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을 통해 비로소 한글이 갖고 있는 가치와 원리, 그리고 특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 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어로서 한글을 잘 이해하는 것과 이미지로서 한글을 잘 활용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이미지 자체로 직접 이해하는 것과, 이미지 일반의 본질에 관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장 폴 사르트르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작업은 언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차원과 시각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미학적 차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활동인데 이때 언어로서의 한글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로서 한글을 다루는 일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에 몰입하고자 하는 유희

에 빠져들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수  
수께끼처럼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이 둘의 관계 때문에 한글의 우수성이 한글 시각문화의  
우수성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  
니다.

김영옥 선생님께서는 한글처럼 쓰는 방향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문자 시스템이 문자의 운  
용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깃발과 간판, 책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한글 쓰기의 자유로움이 정작 우리의 도시 환경을 미학화하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하신 것  
처럼 지금 우리의 거리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간판이 범람하여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데 그렇다고 문자 운용에 너무 많은 제한을 두게 되면 한글 본연의 특성이 사라지게 될  
것 같고, 또 그냥 내버려두자니 시각적 개선이 절실하기도 해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거리 간판문화는 문자의 운용 방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판 자체  
의 색상이나 크기, 재질 등 여러 조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자유로운 운용 방식 역시 이러한 시각 환경을 만드는데 영  
향을 미쳐온 것은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간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도시환경과 시  
각문화에 나타나는 한글의 시각적 활용방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또 디자  
이너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저서 <한글,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의 책머리에는 한글에  
대한 지식이 인문학적 교양으로서만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한글’이라는 담론 속에서 예  
술가, 공학자, 인문학자들이 서로 만나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러한 만남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동안 예술가나 공학자들과 함께 교류하면  
서 진행하셨던 한글 관련 연구나 성과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직까지 구체  
적인 협업단계의 작업은 없었다면 인문학자로서 디자이너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공동연  
구의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전공 학생들이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  
로 한 한글 이론 강좌를 학교나 협회 차원에서 개설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옥

요즘은 공공디자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영국은 대처 수상이 부가가치로서 부와 명성을 올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오늘날 세계 도시 문화라는 것도 뉴욕, 런던, 홍콩 등이 세계도시 문화를 선도한다고 볼 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공공디자인의 적기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벤치마킹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시각 매체의 특징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굉장히 예쁘고, 숲이 가려있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그 반면, 얼마 전 동국대 근처의 족발집의 할머니의 손 글씨 토속성이랄까, 민속성이랄까 엄두를 못 낼지도 몰라요. 이것도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인에 대한 것도 서구미인이라 동양미인이라 했듯이 흑인들을 미인의 기준에 다시 넣듯이, 서구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 발견하고 있나 라는 거죠.

공공디자인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관련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기초적인 연구를 좀 더 해서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기본적으로 홍콩도 보면 글자크기가 크잖아요. 뉴욕이나 런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보면 전통시장에 가면 캘리그래피가 있는데 보면 다양함도 있지만 나름의 이미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획일적으로 보이지 않게 연구를 많이 한 ‘등’이라든지, ‘아케이드’ 모습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일본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일본도 서체 서법의 특징 연구를 많이 했듯, 우리도 많이 해야죠. 우리의 기초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는 서구 모습으로 해서 예뻐 보이지만 10년 후 자괴감이 생길지도 모르고 다른 세대들한테 어떻게 뒤 짚어 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뒤 짚어지는 것 보다는 조금 늦지만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늦더라도 기초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문화라는 것이 100년 정도 밖에 안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라든지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걸 모아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내면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기본은 되어 있잖아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가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세종실록에도 나옵니다. 최만리가 상소를 올릴 때, 당신이 옳더라도 백 년 후 성인이 나타나 옳다고 해서 그 때 바뀌어 되지 않느냐 라고 당신이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고 최만리가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용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요즘 디자인 붐이잖아요. 실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서로 잘 만들어 보자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선 학제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디자인이나 음악이나 연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제, 부여 프로젝트가 있다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시각디자이너, 공학자, 엔지니어, 건축하시던 예술이나 도시공학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한 학자들이 고민해서 풀릴 문제는 21세기에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만나야 합니다. 시각디자이너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이죠. 소통이 바로 우리의 도구이자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글과 현장

인터뷰 참여

1

이명자 / GS홈쇼핑 영상디자이너

2

심우진 / (주)디자인사이 팀장

3

김성은 / 아우라 대표(전 창작과 비평 편집장)

4

김경래 / 중앙일보 디자인연구소 소장

5

홍순기 / (주)이노이즈 대표

6

노은유 / 활자공간 팀장

## 인터뷰 1. 이명자 / GS홈쇼핑 영상디자이너

작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_

본문체보다 손글씨나 꾸밈체 같은 경우 자간이 제 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다른 서체들에 비해 사용할 때 좀 더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에 경우 서체들마다 지원이 되지 않는 자음, 모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영상화면에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서체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홈쇼핑이다보니 한 화면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글자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독성 문제도 있어서 글자를 장평을 한꺼번에 줄이는 경우보다 자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아, 야, 여’ 같은 경우의 글자들은 다른 글자들에 비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의 예를 들자면\_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기 상품인데, 아기들이 사용하다보니 귀여운 글씨, 손 글씨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다보면 글자마다 자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글자 중에서 자음이나 모음부분에서 지원이 안돼서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슷한 서체를 가지고 따로 자음이나 모음 부분을 따서 그 자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화면 하단 부분은 공간이 작는데, 그곳에다 상품 정보를 다 넣다보니 글자를 부득이하게 작게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타 글자보다 자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인터뷰 2. 심우진 / (주)디자인사이 팀장

선호하는 활자와 그 이유는\_

요즘 각진 느낌의 고딕체가 많이 쓰이는데 직각으로 딱 떨어진 부분들이 리듬감이 없고 무미건조하며 단조롭다고 생각합니다. 신명조는 그나마 획의 두껍고 얇은 부분의 대조가 유지되고 있고, 철저하게 좌우대칭이 아닌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는

주로 그런 이유 때문에 sm 중고딕, 신명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자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_

일본에서는 폰트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트를 사용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폰트자체의 완성도도 높습니다. 예러도 없고 그만큼 오랫동안 테스트 하고 견본집을 내더라도 그 폰트가 지향하는 체계를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_

글자사이 조절입니다. 그것은 폰트의 문제보다는 끝까지 안고 가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또한 약물은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의 베이스라인과 한글의 높낮이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각과 반각이라는 폰트자체의 특성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_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관련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안을 설명해주는 메뉴얼 같은것이 나와있기는 합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_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들이 서체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싸워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인터뷰 3. 김성은 /아우라 대표(전 창작과 비평 편집장)

'창작과 비평'시절에 사용했던 폰트는\_

요즘 출판사들이 워낙 대량으로 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을 들이기는 힘들 겁니다. 생산성이 높은 걸 선호하기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정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글 글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딕을 많이 쓰는 이

유는 글자체가 잘 정돈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짜임새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강’이라는 글자 하나의 짜임새도 있겠지만, ‘강물이 흘러갑니다.’ 라는 문장 자체에 있어서도 한글의 짜임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딕은 네모난 틀, 다른 것은 팔각형 인 것도 있겠고, 그런 틀 안에 글자를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_

새로운 폰트를 개발에 있어서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서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뛰어들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만약 판매처를 찾지 못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글날도 있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것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시각적인, 시각디자인적인 관심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

#### 인터뷰 4. 김경래 / 중앙일보 디자인연구소 소장

현재 신문활자에 대한 환경과 문제점은\_

지금은 뉴 미디어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신문의 역할이 흔들리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프린트 미디어 속성에서 통합 개념으로, 즉 온라인, 방송개념, 그런 다양한 미디어 융합개념으로 진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활자에 대한 사용 성 및 속성들에 대한 문제점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모니터에서 활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눈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가독성이나 해독이 어려울 정도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문하고 따로 만들던지 아니면 신문을 진화를 시켜서 온라인 쪽으로 활용해버리던지 그러한 고민들이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활자가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피와 같은 DNA가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전반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자에서 표준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신문에서 활자의 기능은 언론 본연의 개념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 활자는 화려한 옷을 입는 개념이 아니고, 표준말과 표준어, 바른말, 고운 말처럼 정직한 활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는 꼭 표준 언어가 필요하고 표준 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활자의 대략적인 모습은?

저희가 고민하고, 5년 정도까지 신문활자를 조사하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 본문활자부터 제목용 활자들을 수집해서 통계도 내봤는데, 공통점이 상당부분 도출된 부분도 있고 편차가 심한부분과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통분모를 발췌해보니 이상하게도 많이 본 듯 하지만 조금 새로운 그러한 유형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활자라는 것은 표준어가 그렇듯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던 명조, 고딕계열 그런 계열들의 활자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서울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표준 말이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표준 활자가 아닐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인, 혹은 단체나, 민간단체, 민간 기업에서 활자를 고민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목적과 표준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디자이너가 혼자 자원봉사 하듯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므로 활자에 관한 한 공론화시켜 모든 디자이너들이 좀 더 고민하고, 나라에서도 뒷받침해주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표준화 작업에 모두 동참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 표준화 작업이 도출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과정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

## 인터뷰 5. 홍순기 / (주)이노이즈 대표

뉴 미디어에 관련하여 활자의 적응성은?

이쪽 산업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기술 중심적, 제품 중심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에서 제품의 상품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폰트의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즉 디지털 폰트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가독성도 좋아졌고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개발 속도가 중시되는 디바이스 혹은 콘텐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발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폰트가 중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일 순위 내지는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나 MBC에 있는 분들의 많은 노력과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에 대한 많은 어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쪽은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상당히 적을 수 있고, 더불어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는가도 의문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여부나 자격 여부에도 의문이 갑니다. 그보다 일에 치다 보니까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름다운 글꼴의 연구와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일과 제대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페이스에 있어 타이포그래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특별한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개발된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리는 과정, 시장에서의 적절한 가치, 즉 대가를 지불하고서 구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된다면, 모든 폰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최적화된 폰트를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인터뷰 6. 노은유 / 활자공간 팀장

세벌식 활자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

세벌체 글자를 디자인하면 완성형 글자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글자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 좀 낯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독성의 테스트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세벌식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폰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영문과 같은 원바이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과 같은 투바이트 폰트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조합 기능이 없다거나, 글자사이 조절기능이 없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한글 폰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도 좀 더 충분해야 하는데 폰트를 만들어 그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넉넉하지 못해 문제점들을 미처 해결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 문자 같은 경우, 영문이나 일본 폰트에서 따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에 없는 특수문자나 그 정확한 용도에 관한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제작기간은?

글자에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본문체와 제목체, 인쇄용과 방송용으로 나뉩니다. 짧게는 2, 3개월에서 1년, 3년, 아주 길게는 10년까지 각종 연구와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글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글자 디자이너에게 주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보니 글자 자간, 기호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체'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 서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 많은 자족을 그같은 짧은 기간 안에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도 있는 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자이너도 좋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야만 좋은 글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글자를 만들 때 마다 연구를 하며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글자에 대한 연구와 여러 가지 테스트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기획\_이용제 /비탁 타이포분과 이사, 촬영편집\_전기욱 /한세대 대학원

# 종합토론



토론참석자 / 송성재, 홍동원, 정병규, 한계준, 김두섭, 강현주 (사진 왼쪽부터)

사회자

질문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에서 정선생님이 ‘일즉다’를 말씀하신 후로 모든 토론자, 발제자분들이 ‘일즉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에 대한 생각이 토론자나 발제자 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한재준 선생님께서 먼저 여쭙어 봐도 될까요?

한재준

한글은 자라고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한글타이포그래피, 우리나라 시각문화의 방향, 재료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저는 한글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보면 본문형 활자를 이야기하지는 건지, 손글씨를 이야기하지는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저는 오늘 논의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적인 말씨를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한글은 점점 새로운 매체와 결합해서 복잡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홍동원

다르다 같더라는 것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로 뭉쳐졌다가 다시 풀어졌다 하는 순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뭉쳐졌을 때 다시 원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원점에서 어떻게 바뀌면서 어떤 철학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도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중심에서 과연 아직도 훨씬 더 다양한 한글 풀이 필요한 시대인가, 혹은 하나가 필요한 시대인가라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대인지 궁금합니다. 관점들의 간극이 너무 넓어 한쪽에서는 더 많은 글꼴이 필요하다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가 필요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만약 우리가 600년 만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먼저 과연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제대로 알고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한글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 것인가가 의문스러운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문가들이 아닌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때까지 한번 버티 봐야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재준

여기 SBS에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나를 모르는 겁니다. 한글의 이미지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한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한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표준말과 같은 활자꼴을 만들자고 한다는 것은 바른 말 있다고 다양한 지방 말이 죽는 게 아니듯이 진짜 제대로 된 다양함이 꽃 피려면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분은 말씀해주시죠.

사회자

방청석에 계신 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동국

예술의 전당 서예관의 이동욱입니다. 오늘의 논의는 한글 연구, 타이포그래피 등을 한 자리에 모은 자체가 대단한 사건입니다. 향후 타이포그래피 성장, 한글연구, 서예 역시도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맥락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재준 선생님의 자법, 근본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다보다도 일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방고전에 대해 좀더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38페이지를 보면 “자방고전이란...(중략)...제왕적 권유에 대한 언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어적, 문화사적 해석이전에 자방고전에 대한 글자그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자방고전은 글자의 형태가 고전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옥 교수님 말씀대로 진나라에서 문자를 소개하면서 하원주진대까지 갑골, 종전, 대전, 소전까지의 그림글자를 하나의 기호에 맞도록 문자 통일을 함으로 제왕적 권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만이 가지고 있던 문자를 인간에게 돌려준 민중적, 혁명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한글의 원리도 세종대왕이 만든 이유도 제왕적 권위를 내세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다, 아니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맥락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글의 창작 원리가 누구나 인정하듯 주역의 음양원리에 의해서 만들

어졌다는 것은 훈민정음 서문에도 나와 있고, 많은 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 역시 정인지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방고전이라는 것도 그대로 나오고 한글을 반대했던 최만리까지 단서를 달고 왕의 비유를 건드린 겁니다. 중국 서해사적 맥락에서 고전을 가지고 제왕적 권위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고전은 고전입니다. 소전에 근거한 고전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 발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창제 기원설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한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한문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문에 대해서 한글이 지금처럼 혼용이다, 하이브리드다 하면서 한글이야기만 나오면 한문이야기를 하면 맞아 죽을 것처럼 쫓대 없이 중국문자로 한글의 순수성을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절실한 이야기이지만, 한글은 자형의 문제, 제작 원리에서 상형을 응용했다 인정하는 맥락과 같이 말 그대로 소전의 글자꼴을 모방한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수천 년(세종대왕 2500년 전) 문화 소재를 가지고 세종대왕이 재창조했다는 맥락에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는 물론이고 도서관 관리들한테 한자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문헌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자에 대해 잘 모르면서 세종대왕을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평민들이 상소를 올릴 때 도장을 보게 하는데 인적을 보고 오차에 이르면 관직을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관리들이 도장을 못 읽으면 파면을 이르도록 하는 사례들을 볼 때 고전의 해석이 진시왕의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왕적시대로 비약하는 것은 많이 나간 것이라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자

어느 분께 답변을 원하시는지요?

이동욱

정병규 선생님도 방형을 말씀하셨는데, 네모꼴, 탈네모꼴 논의 자체도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때 방형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방형을 벗어날까 말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모든 형태로 가는 것이 한글인 것입니다. 방향을 벗어나는 데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의 정체성 문제나 ‘일즉다’에서 ‘일’ 이전에 ‘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다’를 해도 그것은 사상누각인 것입니다.

정병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김영옥 선생님의 말씀은 대단히 문학적이었다는 그 정도에서 받아들이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는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기에 하겠습니다. 한글 훈민정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방고전입니다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김영옥 선생님과과는 농담을 했습니다. 세종이 국어과 교수를 먹여 살리려고 농담으로 퀴즈를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분명 이동국 씨가 말씀하신대로 보안제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모든 훈민정음 관련 논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신숙주가 해례본을 만들 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이 결과를 신숙주가 오가며 교정을 받고 다 해냈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늘 폰수가 있구나,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황 했냐면 ‘일즉다’라는 것은 표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그 말을 표준으로 바꾸어도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표준을 만들자는 것의 해명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원리가 없으면 이론이 없고 한글 만드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원리들은 굉장히 급한 원리입니다.

한국사회가 디자인계에 진입하고 나서 한글에 시각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잘 사용도 해야 되겠고, 사용해보니 불편한 것도 있고, 욕심도 생겨 잘 만들어야겠고, 눈치 빠른 장사꾼들은 장사도 해야겠고 이게 겹쳐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한글디자인이론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실천을 받쳐주고 밀어내는 힘으로서의 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컴퓨터, 디지털 시대 이후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이 완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해온 콜드타입, 핫타입, 디지털타입을 포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시각적 문자의 가시적 형상

화, 다시 말하면 문자의 물질성(볼드만의 용어)을 포괄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중요시하지만, 활자가 다는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는 디자인계, 특히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된 책들도 굉장히 엉망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사실들이 한국디자인 실행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피는 것이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문자의 독창성은 곧 활자나 타이포그래피의 독창성과 이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그래서 제 글에서 중국서예와 한자서예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시성입니다. 김영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비어천가는 납활자고, 훈민정음은 목활자입니다. 목활자는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목활자를 만들었어요. 납활자는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문자 자체, 자형 자체와 목활자든 금속활자든 동시성의 문제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책이라는 형식은 임금이 반포를 할 때는 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틀어서 지금의 입장에서 동시성의 문제, 문자를 만들면서 책까지 만드는 것은 근대의식의 소산이겠지요. 타이포그래피 의식을 불러보자는 것이고, 그 세 번째가 ‘일즉다’라는 겁니다. ‘일즉다’라는 것은 원리가 있고, 그것이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말을 불러 멋있게 불러서 그렇지 이론과 실천의 문제이죠.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한글은 독특한 타이포그래피의 원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일’이라는 것이 표준성에 바탕이 되어도 되겠구나. 훈민정음의 표준, 하나라는 것이 ‘다’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다’라는 말은 한글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표준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에 가장 먼저 자방고전이라는 말과 함께 한자와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사용에 의해서 편하게 하는 것과 배워서 자기 뜻을 실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방고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것일 테고, ‘일즉다’라는 것은 이런 근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상수

국제고문으로 있는 강상수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 감사합니다. 창제할 때 자방고

전이라고 해서 소전에서 대전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이 창제한 것은 맞습니다. 세종은 창제 전 자신부터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한재준 선생님 말씀처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한글은 자모음 28자라고 하는데 아에서부터 이까지 있습니다. 양쪽이 조합이 될 때 한글이 됩니다. 문자가 아니라 자모음으로서 모음 부호일 뿐, 소리를 낼 수 있는 형상화된 것으로 말이 되어야 한글이 되지만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형이 있었어요. 소전, 대전으로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병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ㄱ, ㄴ, ㄷ, ㄹ’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종을 능가하고 고전이 무엇인지 진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목적입니다. 근본은 알되, 과거의 녹슨 틀에 얽매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배현경

홍익대 국제대학원디지털미디어 재학 중인 배현경입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김영욱 선생님이 먼저 가서서 아쉽네요. 이 강연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 질문은 꾸준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제가 교수님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타이포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관련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나 서적이 있다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규

먼저 훈민정음을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재준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 [hangeulss.com](http://hangeulss.com)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한글과 관련된 대부분의 단행본, 잡지기사,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진

한글 문화웹진, 은한글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병규 선생님께서 한글의 과잉운동에 관해서 짧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연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규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속이 좁아 보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저도 반성해 본다면 한글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훈민정음의 특징이 원리로 된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해석의 폭이 넓어 남을 부정하고 나만 옳다는 편견의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은 대단히 우리 문화나 삶, 미래를 이야기 할 때 확실한 이야기꺼리가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사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글 독창성의 문제입니다. 한글이 독창적이어서 한글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글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학문자체까지도 신비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한글을 논의하는 자리나 담론들의 성격이 조금은 외골수 아닌가 라고 느낍니다. 참고삼아서 한글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는 이유의 바탕도 이런 것이고, 그것의 반성의 바탕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 심포지엄은 한글 시각문화의 향방이 주제입니다. 오늘 정병규 선생님께서도 반성과 실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실적 이야기로 돌아와서 반성과 문제점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도 나왔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강현주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강현주

홍동원 선생님이 한글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과연 전문가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을 돌려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을 것인가, 받고 있느냐가 아니

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거나 결심하면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재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표준화작업 같은 대형프로젝트가 실제 시도되더라도 50~100년이 지난 후에도 국가적인 표준으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도 그 성과가 만약 좋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디자인에 있어서 최근의 문제점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된 저변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유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재로서의 디자인 연구와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건 어디건 간에 그것이 일종의 생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재 연구 활동 자체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대학에 있으니 이야기를 하자면 공대 같은 경우 실험실, 랩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너무나 좋은 이론과 가설을 갖고도 랩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한 글시각의 문제들은 여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써보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께 물어 보았는데 일의 절차인 제안의 단계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안서 단계를 건너뛰고 성과를 예상하고 미리미리 지원을 받고 펀딩을 받은 다음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제안서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같은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성재

오전에도 토론과 질문의 시간이 짧아 무얼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을 했는데, 한글디자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각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 할 겁니다. 모든 자유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반성을 해야겠지요. 오늘 지금 한글 시각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간판문화라고 하면 불만이 있겠지만 그것

은 한글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정작 핵심은 본문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체로 좁히면 여러 논의를 계속해야겠지요. 본문 디자인이 있는지 본문에 관심을 갖고나 있는지, 돈을 주면 시작을 할 것인지, 돈을 많이 주면 할 것인지, 할 만한 사람은 있는지를 우리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심포지엄 전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세종대왕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무엇이 핵심인지 혼돈스럽습니다.

홍동원

언뜻 저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반성해야지 내가 반성해야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에선 제대로 된 디자인에 대한 보수, 대가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질에 대한 경쟁에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대한 요즘 생각은 이런 간극을 넘어선 우수한 디자인,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르네상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글을 응용한 주제를 이용한 시각물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는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악한 디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행하게도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이 처음 타이포그래피를 접하는 매체, 그러니깐 출생 신고서를 받았을 때의 출생신고서 양식은 제 자식의 이름을 쓰기 싫을 정도로 열악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이너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관공서의 양식이 폭력적입니다. 왜 폭력적이라면 싫어도 봐야한다는 겁니다. 상업적 디자인은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되지만, 그런 공공의 디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디자인입니다. 또 다른 예가 간판이겠죠, 간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식들, 공공 디자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차에 부쳐 놓는 광고 문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디자인이라고 보여주고 싶은가라고 한다면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디자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런 공문서 쓰기 싫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무심히 써온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런 무심한 와중에 어떻게 일취월장해서 디자이너가 만든 우수한 디자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방치했던 것은 아닌가, 무언가 오늘 이후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디자인 전공자들일텐데, 한번쯤 내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된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런 것들을 점차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런 세미나 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알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디자인을 가늠하지 않느냐, 서울 디자인수도도 좋지만 큰 명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는 아주 간단한 디자인에서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두섭

오늘 참석해서 느낀 인상은 홍동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벌체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년 전 안상수, 한재준 선생님이 의해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지요. 그런 논의가 진행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힘이 빠졌는지 계속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벌체 연구를 하고 있다면 완성형이나 네모꼴에 네거티브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조심스러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벌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다 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장점이 있다면 지치지 말고, 앞으로 더 이야기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이 글자라는 것 뿐 아니라 세벌체에 대한 심화된 여러 연구들을 발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벌체 변명을 하자면 2350자를 디자인하는 수고를 던다고 해서 문자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옥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모음의 알고리즘, 모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뛰어넘기가 힘든 단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영문은 발음과 문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글은 그런 것으로 볼 때,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의지였기 때문에 11172자가 세벌체로 가능한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한글은 8천 자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한자는 4~5만자 혹은 몇 자가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한글의 글자가 소리보다 많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글이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전파하는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는 세벌체 기획의 원리가 훨씬 더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규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시각디자인과 2~3학년에서 훈민정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훈민정음은 문헌을 넘어서 한글의 원리가 담겨있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 문자에 대한 설명이지만 원리는 문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각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 창조의 원리로서 훈민정음을 배우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한국디자인의 원리도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심포지엄은 발표자들이 너무 많았나 싶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끝장토론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의문이 분명 생길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의견 혹은 자기표현의 문제의식에 충동질하는 그런 장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재준

정병규 선생님이 말씀에 덧붙이자면 다양한 모임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도 그 자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일 년 내내, 십년 내내 될 때까지 해야겠다고 자기가 나서야지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조만간 한글 진흥 정책 공개토론회를 갖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 운동을 펼쳐야지요. 시민운동이 성공하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안가도 토론이 되겠지라고 하면 그 추진은 곧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 심포지엄은 한글과 타이포그래피의 미래를 향한 실천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엄숙하고 장엄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이성적, 문학적인 시각으로 한글을 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슴 한 쪽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를 함께 하기까지 자리한 학생,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느끼셨던 것들을 각자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글 시각문화의 향방 심포지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약력 (가나다순)

강현주

현재, 인하대 시각정보디자인과 및 대학원 협동과정 문화경영전공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미술과, 스웨덴 콘스트팍(Konstfack) 졸업  
저서: 『디자인사 연구』,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공저),  
『한국의 디자인: 산업, 문화, 역사』,(공저), 『한국의 디자인 2: 시각문화의 내밀한 연대기』,(공저)

권혁수

현재, 디자인사회연구소 소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졸업  
가나아트갤러리 디자인실장, 비상임 디렉터, I & I 디자인 실장, 기획 이사 역임  
대한교과서 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 교장, AGI, Gantext 사외 이사(기획)  
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 위원,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김두섭

현재, 눈디자인 대표,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한글글꼴특별위원

김영옥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언어문화사 및 고대 한국어 강의  
뉴델리 네루대학교에서 인도 학생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사 강의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으로<국어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1993). 그 외 논저로는  
<백제이두의 연구>(2003), <각필의 기원에 대하여>(2005), <화화 한문의 기원에 대하여>(2007),  
<고대한국목간에 보이는 차자표기법에 대하여>(2007)

송성재

현재,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런던미술대학 대학원 졸업(MA Book Arts)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디자이너,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이사  
제1회 직지한글글꼴공모전 대상, 직지서체 개발, 중학교 2종 교과서 편집디자인 심의위원  
서울시스템 폰트개발 참여, 동아일보사 신문서체 개발 참여, 커뮤니케이션북스 편집교문

### 송현

현재, 시인이며 한글문화원장

동아대학교국문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학

전 공병우타자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월간 디자인 주간, 경기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 역임.

저서: 『한글기계화개론』, 『한글자형학』, 『한글기계화운동』,

『한글을 기계로 옹계 쓰기』, 『한글기계화의 아버지 공병우』 외 다수

### 정병규

현재, 정디자인 대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장, 한국영상문화학회장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프랑스 에콜 에스티엔느 수료

《소설 문예》 편집장, 민음사 편집부장, 신구문화사 편집인, 홍성사 주간 역임

서울올림픽 전문위원, 아시안게임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영상대학원 강의

### 한재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및 동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졸업,

VIDAK 타이포편집분과부회장 역임

한글 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으로, <한글,스승>특별전 총괄책임(출판도시문화재단, 2008),

<곱고 바른 한글 활자꼴 개발의 필요성 연구>(국립국어원, 2007)

<탈네모틀 세벌식 한글 활자꼴의 핵심 가치와 의미>(기초조형학연구, 2007)

<Changing Forms of Hangul Typeface: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Osaka University, 映像人文學, 2003)

『한글디자인』(공저, 안그라픽스, 1999)

<한글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디자인학연구, 2001)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1996)

### 홍동원

현재, 글씨미디어 대표, VIDAK 출판담당 부회장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및 동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졸업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조선일보,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한겨레신문 아트디렉션 참여